

정책연구보고서 2016-15

대전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연구

지 남 석 · 임 병 호



연구진

연구책임

- 지남석 박사 /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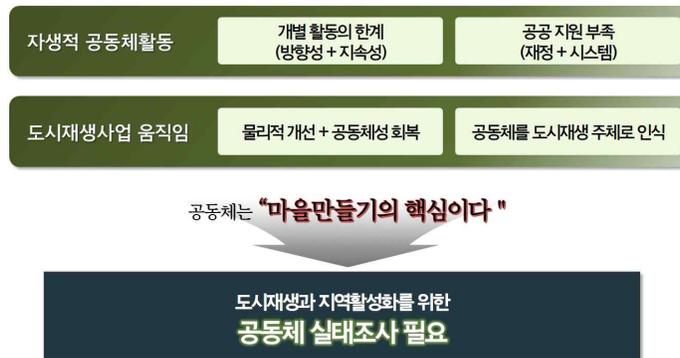
- 임병호 박사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결과 요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통적 가족, 이웃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이웃간 소통 단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도시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성을 회복하는 재생방식 도입이 시도되고 있음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를 제고토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연계 지원토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대전시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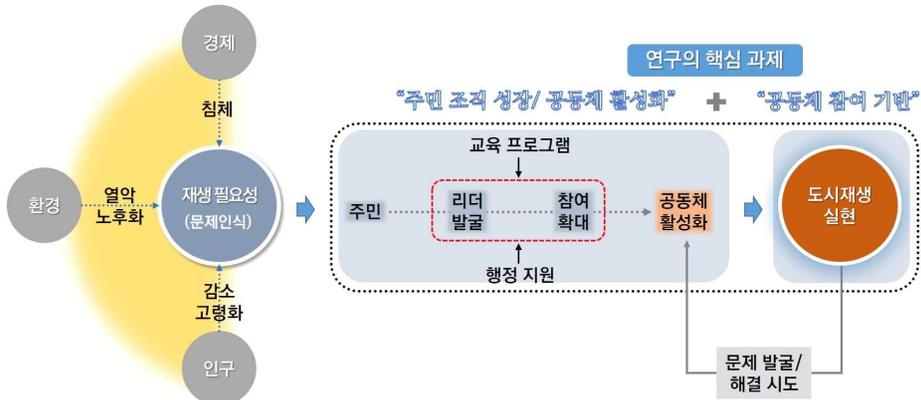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대전시 재생사업 지원체계 및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조사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 확보 방안
- 중간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강화 방안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연구의 핵심 과제]

II.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의 관계

- 최근 우리나라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에서는 ‘도시재생’이 주요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여건을 지속 개선하는 종합적인 도시부흥 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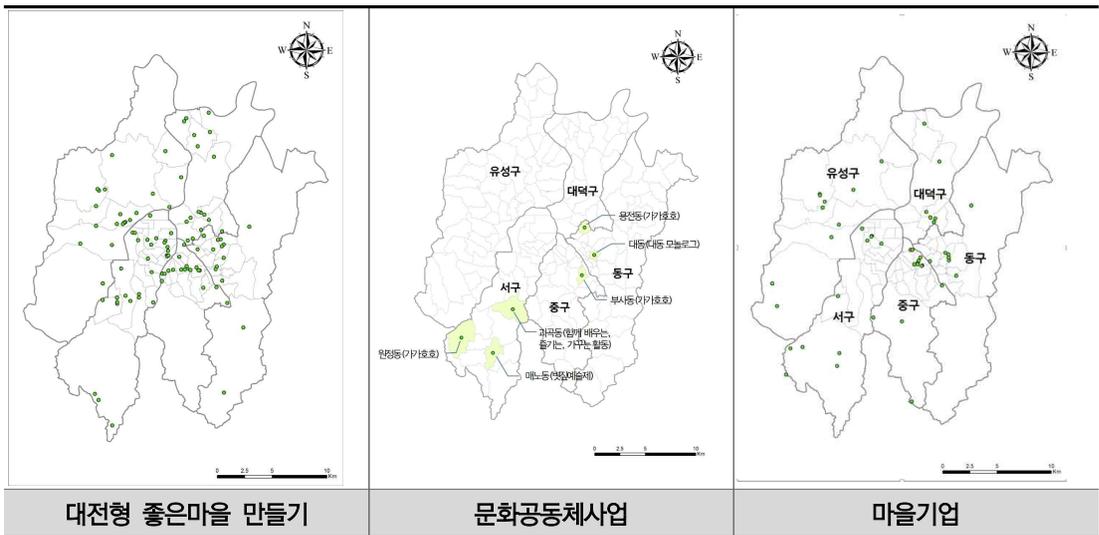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 도시재생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다른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마을공동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임
-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의 활동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III.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사업 추진현황

-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인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문화공동체사업’,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현황과 특징을 살펴봄



[사업별 대상지 분포]

□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특성

-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지원 이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원하

거나, 전략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참여 만족도가 높고, 연차 및 단계가 진행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일부 다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단계가 진행될수록 참여공동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활동이 불투명한 공동체가 많음

□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 특성

-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사업유형별로 전담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 구성부터 네트워크 구축까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시도하고 있음
-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각기 다른 지원기관 및 개별부서가 관할하고 있어 전체적인 공동체 통합 관리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 공동체 관련사항이 일부 조례에 분산되어 있고, 마을공동체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함

□ 사업별 도시재생요소 종합

-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된 재생요소 관련사항은 ‘지역성 회복’, ‘역량 강화’, ‘지역자원 조사’, ‘커뮤니티 사업’, ‘거점공간 활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구성을 통한 조직 체계 구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영역에는 다수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동체 활동기반인 공간정비를 다루는 물리적 환경재생 항목은 한정적으로만 적용됨

IV.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영역을 설정하고, 대전시 사례를 토대로 영역별 활성화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 지원영역: 구성원 교육 및 육성, 공동체 조직 및 지원, 생활환경 정비, 공간 조성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영역별 사업연계 과정]

□ 구성원 교육 및 육성

- 마을학교 운영: ‘주민 관심 증대 → 리더 발굴 및 참여 확대 →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일련의 과정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함.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지원함
- 지역 전문인력 활용: 전문가 및 대학 등 대전시가 보유한 지역 전문가 인력과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함(예: 대전시 ‘마을학교개론’ 활성화)
- 마을활동가 발굴: 활동가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확대함(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 연수프로그램’ 참고)
-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관련일자리 및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토록 지원함(예: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 공동체 조직 및 지원

- 마을공동체 활동 다양화: 공동체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자체적인 노하우를 체득하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으로 공동체 활동이 확대되도록 유도함(피드백 과정을 통한 문제 발굴 및 해결 시도)

- 주민 모임 활성화: 간담회, 워크숍을 통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의제 발굴에 주력하고, 주민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함(예: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우수사업 발굴 등)
- 마을조사 및 지역자원 발굴: 마을에 숨겨진 역사와 가치를 찾는 과정은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음
- 마을잔치 및 축제: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마을잔치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활력을 제공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공동체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함

□ 생활환경 정비

- 주거환경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은 참여자 관심을 높이고 물리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체감효과가 있으므로, 주택 등 주거환경에 대한 재생요소가 확대 도입되어야 함
- 가로환경 개선: 열악한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마을길 만들기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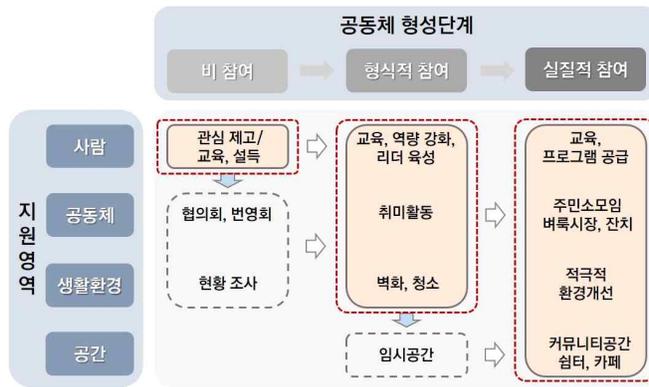
□ 공간 조성

- 예술문화공간 조성: 문화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작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예술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스트리트 마켓, 문화의 거리 등)
- 공유공간 공급: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동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 및 공유공간으로 사용함(마을텃밭, 쌈지공원 등). 소통과 나눔의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공간을 확대 보급함(공유주택, 공유부엌 등)
-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동체 활동이 성과로 나타나고 공간수요가 가시화된 이후에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임
- 공유공간 네트워크 확대: 공유네트워크 플랫폼 ‘공유대전’을 통해 공간공유 개방장소를 민간단체, 금융기관, 교회 등의 민간시설까지 포함하여 공유

공간을 확대 지정함

□ 지원영역별 활성화 종합

- 마을공동체 형성단계(비 참여 → 형식적 참여 → 실질적 참여)에 따라 적정 지원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비 참여’ 단계에는 관심을 높이고 교육하는 일에 주력하고, 공동체, 생활환경 영역 지원을 준비함
- ‘형식적’ 참여단계에서는 사람, 공동체, 생활환경 영역 지원을 수행함
- 공간조성에 있어 ‘형식적’ 참여단계에서는 임시공간을 제공하고, ‘실질적’ 참여에서는 커뮤니티공간, 쉼터, 카페 등을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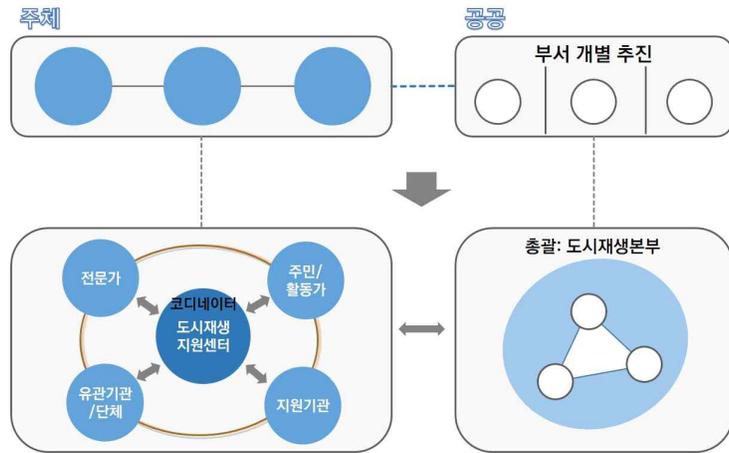


[공동체 단계별 지원영역 추진내용 종합]

V. 대전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방안

□ 지원체계 개편

-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 개편: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지원역할을 총괄·관리하는 조직 구성을 검토함
 -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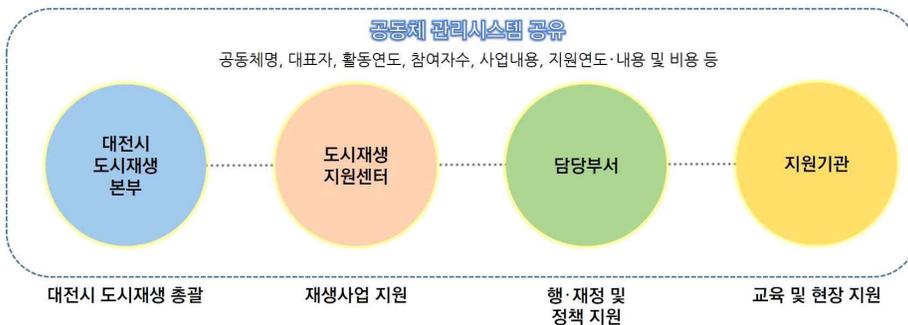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체계 개편(예)]

- 대전시 도시재생 연계 시스템 구축: 도시재생과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색깔과 역사가 담긴 ‘스토리텔링형 도시재생’이 도입되어야 함

□ 현황 관리체계 마련

- 대전시 통합 마을공동체 현황자료 구축: 공동체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총괄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전시 담당부서 및 관련 지원기관이 협력하여 공동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관련기관의 마을공동체 정보 공유(예)]

□ 마을공동체 지원 강화

- 대전시 우수사례 공유: 우수 마을공동체 활동사례를 선별하여 공유하고, 유형별로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대전시 공동체 지원자와 활동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 장기적 지원플랜 마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단기간(1년) 지원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 실무담당자 지원역량 강화: 재생사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강화, 인원 확충, 업무 습득기간 반영(근무기간 보완) 등이 필요함

□ 추진방식 다변화

- 마을공동체 지원의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공동체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되,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방식은 철저하게 제외토록 함
- 지원방식 다양화: 지정공모 방식과 자율공모 방식의 적절한 배분으로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 사업화를 이끌어 내도록 함

< 추진방식별 특징 비교 >

지원방식	장점	활용방안
지정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전략적 활용 가능 • 시급지역에 선별적 적용으로 즉각적 개선 효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지원형태로 추진 • 공공-민간 협력형태로 유도
자율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동에 기반한 이상적 추진방식 •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지원형태로 추진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및 지원대상 확대: 공동체 활동가들에게 부족한 사업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6
제2장 이론적 고찰	9
제1절 개념 이해	11
1. 마을공동체란?	11
2. 현대사회와 마을공동체	16
3.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20
제2절 관련 법·제도 검토	22
1. 공동체 관련 법규 : 「도시재생법」	22
2. 대전시 공동체 관련조례 검토	24
3. 타 지자체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검토	28
제3절 대전시 재생사업 지원체제 개편	31
1.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31
2.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34
제4절 선행연구 동향	37
1. 공동체 활성화 관련 연구	37
2. 도시재생 및 주민참여 관련 연구	38
3. 연구의 차별성	39
제3장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41
제1절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43
1. 개요	43
2. 추진현황	45

3. 지원기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49
제2절 문화공동체사업	51
1. 개요	51
2. 추진현황	54
3. 지원기관: 대전문화재단	55
제3절 마을기업	58
1. 개요	58
2. 추진현황	62
3.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65
제4장 사례 검토	69
제1절 사업유형별 사례	71
1. 사례 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71
2. 사례 2: 문화공동체사업	77
3. 사례 3: 마을기업	82
제2절 인터뷰 조사	88
1. 지원관계자 인터뷰	88
2. 공동체 활동가 인터뷰	93
제3절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특성 종합	98
1.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특성	98
2. 사업별 도시재생요소 검토	103
제5장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105
제1절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지원영역 설정	107
1. 관련연구에서의 영역 검토	107
2. 지원영역 설정 결과	109
제2절 지원영역별 활성화방안	110
1. 구성원 교육 및 육성	110
2. 공동체 조직 및 지원	113
3. 생활환경 정비	115
4. 공간 조성	116
5. 지원영역별 활성화 종합	119
제3절 정책적 지원방안	120

1. 지원체계 개편	120
2. 현황 관리체계 마련	121
3. 공동체 지원 강화	122
4. 추진방식 다변화	123
제6장 결론	127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29
제2절 정책 제언	131
참 고 문 헌	133
부록	137

- 표 목 차 -

〈표 1-1〉 연구 대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5
〈표 2-1〉 기존 연구에서의 마을공동체 정의	13
〈표 2-2〉 공동체 발달 단계	15
〈표 2-3〉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중 공동체 지원사항	27
〈표 2-4〉 지자체별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조례 제정현황	28
〈표 2-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의 구성(서울시)	29
〈표 3-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연도별 추진현황	46
〈표 3-2〉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모임유형별 구성	47
〈표 3-3〉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사업유형별 구성	47
〈표 3-4〉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자치구별 분포	48
〈표 3-5〉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내용	49
〈표 3-6〉 「동거동락(洞居同樂)」의 세부유형 특징(공고 기준)	53
〈표 3-7〉 희희낙락(喜喜樂樂) 프로젝트 대상사업	53
〈표 3-8〉 연도별 문화공동체사업 개요	54
〈표 3-9〉 대전문화재단의 추진과제	57
〈표 3-10〉 대전문화재단의 사업영역	57
〈표 3-11〉 유사 개념과의 비교	59
〈표 3-12〉 마을기업 요건	60
〈표 3-13〉 대전형 마을기업 유형	61
〈표 3-1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도시재생법」)	62
〈표 3-15〉 대전시 구별 마을기업 현황(2010~2016)	63
〈표 3-16〉 대전시 마을기업의 법적지위별 현황	64
〈표 3-17〉 대전시 마을기업의 사업유형별 현황(2010~2016)	64
〈표 3-18〉 마을과복지연구소의 비전과 미션	66
〈표 4-1〉 2012년 문화공동체사업 세부내용	77
〈표 4-2〉 2013 문화공동체사업(동거동락(洞居同樂)) 지원 내용	78
〈표 4-3〉 2014 문화공동체사업 내용	79
〈표 4-4〉 2015 문화공동체사업 내용	80

<표 4-5> 대전시 주요 마을기업 사례	87
<표 4-6> 사업유형별 재생요소	103
<표 5-1> 국토교통부(2014)의 지역유형별 사업모델	108
<표 5-2> 추진방식별 특징 비교	125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그림 1-2) 연구의 주요 논의점	5
(그림 1-3) 연구의 핵심 과제	6
(그림 1-4)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2-1) 마을공동체 가치의 재인식	11
(그림 2-2)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구성요소	14
(그림 2-3) 활동목적에 따른 공동체 유형구분(예)	16
(그림 2-4) 지식 형태의 유형	17
(그림 2-5) 주민참여 사다리이론	18
(그림 2-6)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20
(그림 2-7)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23
(그림 2-8)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영역과 조직체계	25
(그림 2-9) 2015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 설명회	26
(그림 2-10)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홈페이지	31
(그림 2-11)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조직구성	32
(그림 2-12) 대전시 도시재생의 방향과 시책	33
(그림 2-1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체계 구성(예)	34
(그림 2-14)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사업(2016년)	35
(그림 2-15)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활동 및 주요 발간물	36
(그림 3-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선정절차	43
(그림 3-2)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포스터	44
(그림 3-3)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연도별 분포	46
(그림 3-4)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업구성	50
(그림 3-5) 문화공동체사업의 정의	51
(그림 3-6) 문화공동체사업 추진지역	55
(그림 3-7) 대전문화재단의 비전과 미션	56
(그림 3-8) 마을기업의 개념	58
(그림 3-9) 마을기업 사업추진 절차	61

(그림 3-10) 대전시 마을기업 분포	63
(그림 3-11) 대전시 마을기업 유형별 현황	65
(그림 3-12)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절차	66
(그림 3-13) 마을과복지연구소 조직도	67
(그림 3-14) 마을과복지연구소의 목적사업	67
(그림 3-15) 마을기업연합회 이사회 활동(2016년)	68
(그림 4-1) 2014 문화공동체사업	79
(그림 4-2) 2015 문화공동체사업 결과발표회(고릿골 ‘괴곡 예술제’)	81
(그림 4-3)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밀’	83
(그림 4-4) 대전형무소 기념 평화공원(중구 중촌동)	84
(그림 5-1) 공동체 단계와 지원영역 관계	109
(그림 5-2)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영역별 사업연계 과정	109
(그림 5-3) 공간공유 시스템	118
(그림 5-4) 공동체 단계에 따른 지원영역 추진내용	119
(그림 5-5) 대전시 공동체 활동 지원체계 개편(예)	120
(그림 5-6) 관련기관의 공동체 정보 공유(예)	122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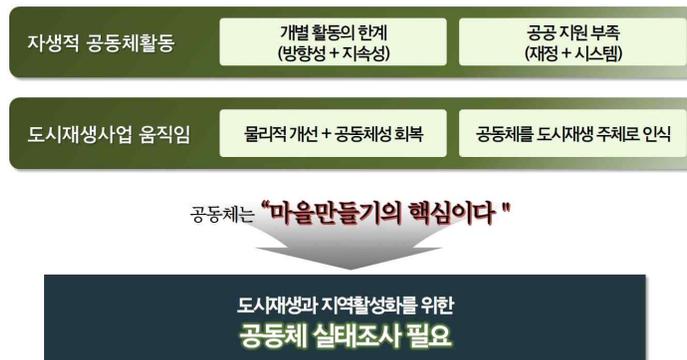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전통적 가족, 이웃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교제시간이 감소하고 개인 활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점차 개인주의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왔음
 - 도시적 측면에서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간 확산,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웃간 소통 단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생적 또는 정책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지역발전과 마을공동체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을공동체 연계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한편, 노후 도시의 공동화,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시도가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도시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재생방식으로 활력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 참여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 정비가 아닌 지역 고유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임
 - 마을만들기로 대표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공동체를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여관현, 2013)

- 대전시에서도 그 동안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는 공동체 개별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고, 지원이 부족하여 효과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네트워크화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특히,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을공동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를 제고토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연계 지원토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마을공동체 활동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생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함
 - 이를 통해 향후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대전시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 주요 논의점

- 본 연구에서 살펴볼 주요 논의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은?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얻어진 가시적인 성과는?
 -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그림 1-2) 연구의 주요 논의점

□ 방법

- 관련 법·제도 조사 및 선행연구 동향 검토
-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조사
 - 도시재생과 연계성이 높은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으로 진행
 - 사업유형별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
- 실무관계자 및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 인터뷰 조사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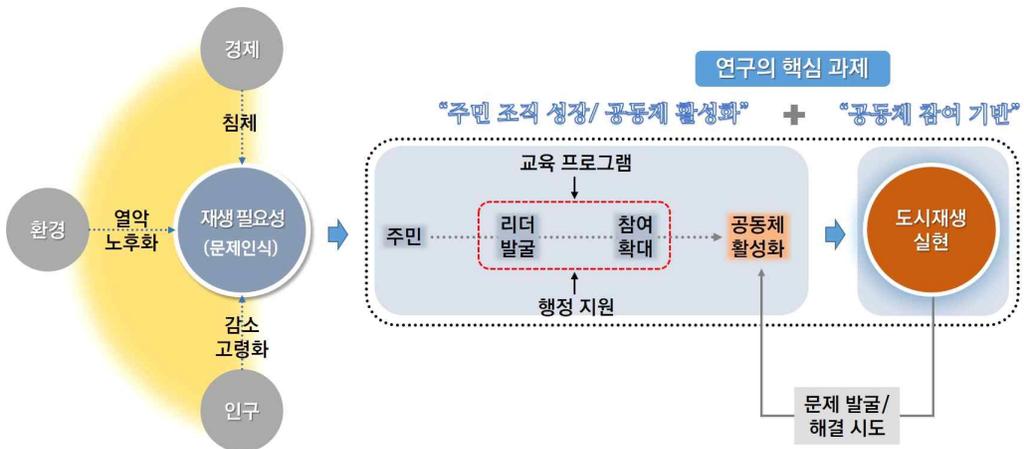
<표 1-1> 연구 대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구분	담당부서 및 조직	지원시작년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3년
문화공동체사업	(재)대전문화재단	2012년
마을기업	대전시 과학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2010년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주요 내용

-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조사 및 DB 구축
 - 지역별로 산재한 마을공동체의 현황 파악, 마을단위별 현황 DB화
 - 영역·분야별 공동체 지원 현황 파악, 추진체계, 추진성과 분석
- 공동체 지원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 확보 방안
 - 지역발전과 공동체 역할 간의 상관관계 조사
 -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 및 중요성 검토
- 중간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그림 1-3) 연구의 핵심 과제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1-4)와 같음
 -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p>I. 서론</p> <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p> <p>II. 이론적 고찰</p> <p>제1절 개념 이해</p> <p>제2절 관련 법·제도 검토</p> <p>제3절 대전시 재생사업 지원체제 개편</p> <p>제4절 선행연구 동향</p> <p>III.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p> <p>제1절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p> <p>제2절 문화공동체사업</p> <p>제3절 마을기업</p>	<p>IV. 사례 검토</p> <p>제1절 사업유형별 사례</p> <p>제2절 관계자 인터뷰 조사</p> <p>제3절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특성 종합</p> <p>V.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p> <p>제1절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지원영역 설정</p> <p>제2절 지원영역별 활성화방안</p> <p>제3절 정책적 지원방안</p> <p>VI. 결론</p> <p>제1절 연구결과 종합</p> <p>제2절 정책 제언</p>
--	--

(그림 1-4)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념 이해

제2절 관련 법·제도 검토

제3절 대전시 재생사업 지원체제 개편

제4절 선행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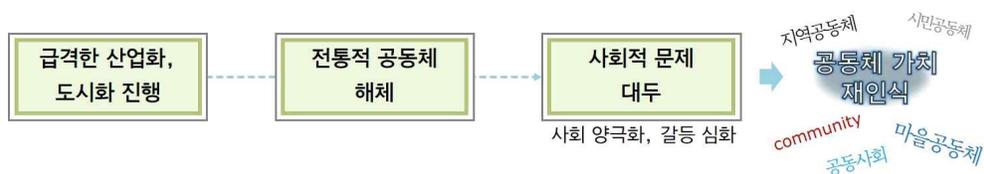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념 이해

1. 마을공동체란?

1) 정의

-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산업화 및 개발지향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을 경험하였음
-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보다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사회 양극화, 주민 갈등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가치를 재인식하게 됨



(그림 2-1) 마을공동체 가치의 재인식

- 본 연구의 대상인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시대와 연구 목적 또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음
- 전통적 의미로는 지리적 또는 영역적인 관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대의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이해관계나 가치관, 관심사안 등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이태희, 2015)

-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여관현(2012)은 ‘일정한 장소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지속적인 정주의식을 가지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이기태(2015)는 지역공동체를 ‘지리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각 정주를 단위로 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함
- 최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서울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라 정의함
 - 이와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현대적 의미를 종합하여 마을공동체를 ‘일정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고 공동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라 정의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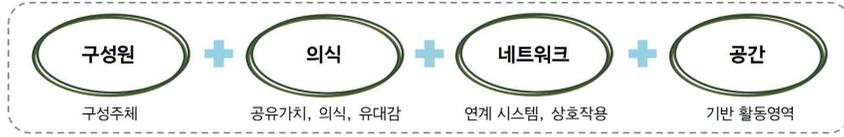
1)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공동체,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으로 혼재 사용되고 있는 관련용어를 ‘마을공동체’로 통일하였음

〈표 2-1〉 기존 연구에서의 마을공동체 정의

구분		정의
공동체	Nisbet (1985)	•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을 함께 경험해 온 집단 의식
	신화경 외 (2010)	•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지역 주민 집단
	여관현 (2012)	• 일정한 장소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지속적인 정주의식을 가지는 것
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서울연구원 (2012)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하는 집단의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며 상호연대부조를 기초로 하는 공동체
	김은선 (2014)	• 의지와 활동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
지역공동체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
	김찬동 외 (2012)	• 일정한 공간에서 '우리' 라는 상호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민집단의 단위
	이기태 (2015)	• 지리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각 정주를 단위로 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 마을공동체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범위가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음
 - 하현상(2015)은 공간적 영역(area), 주민간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심리적·정서적 유대감(common ties or communality)을, 여관현(2012)은 소속감, 욕구의 충족과 통합, 연대의식, 상호영향의식,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 등을 제시함
 - 이기태(2015)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공유 가치 기반의 '공동체 의식',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스템'으로 정리하였음

- 대체로 공동체 구성주체로서의 구성원과, 공동체가 기반하는 공간, 그리고 구성원 간의 유대감·공동의식을 주요 구성요소로 다루고 있음



“일정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그림 2-2)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구성요소

2) 마을공동체의 관심 증대

(1)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

- 마을공동체는 최근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
 -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와 시장 역량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음(이태희, 2015)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마을공동체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형성되어 왔음
 - 주민과 지역 리더를 중심으로, 시민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 초기 마을공동체는 대부분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이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²⁾
 -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자체문제를 효과적

2)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 라는 국정목표의 추진전략 중 하나로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을 제시한 바 있음

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제공, 경제적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³⁾

(2) 마을공동체의 단계

- 마을공동체는 구성원의 의식과 역량, 그리고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성장의 과정을 거침
- 김찬동(2012)은 공동체가 단순한 모임이라는 수준에 장소적 개념과 개인적 역사와 전통, 가족환경 특성 등이 덧붙여지면서 공동체에 대한 소유의식이 형성되고, 소유의식이 발전하여 사회통합적 단계로 진화한다고 언급하였음
 - 마을공동체 발달 단계는 참여 및 활성화 정도에 따라 ① 참여활성화 단계(이성 및 감성적 결합), ② 공동체성 구비 단계(공동체의 정체성 보전), ③ 주민자치적 단계(상호작용과 투자), ④ 준단체자치적 단계(대의기능 포함) 등으로 구분됨

〈표 2-2〉 공동체 발달 단계

단계		키워드	사업주체별 내용
1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에 대한 애착	•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편안함 등의 느낌을 가지게 됨
2	공동체성 구비 단계	유대감, 호혜성, 응집력	•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키며,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3	주민자치적 단계	운영체제, 자원, 서비스 공급	•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4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대의성, 시설공급, 행정권한 이관	• 구성원들만으로 자치가 가능하며, 행정은 지원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단계

출처: 김찬동(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3) 이태희(2015)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주목 이유를 1) 정부의 복지 확대 한계에 따른 공동체의 책임 필요 2)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의 개인주의 문화 확산에 따른 부작용 해소 3) 기존 정치체도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약화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참여 필요성 등으로 정리하였음

3) 마을공동체 유형

- 마을공동체는 활동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동체의 구성형태나 활동목적과 대상, 활동주체, 대상지역 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음
-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⁴⁾을 추진하고 있음
 -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주민모임·마을카페), 함께 기르고 돌보며(마을복지·공동육아), 건강한 공존을 고민하고(에너지자립·안전마을 등),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여(마을기업), 함께 즐기는(마을축제·마을문화) 모든 활동들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설정함



(그림 2-3) 활동목적에 따른 공동체 유형구분(예)

출처: 서울특별시(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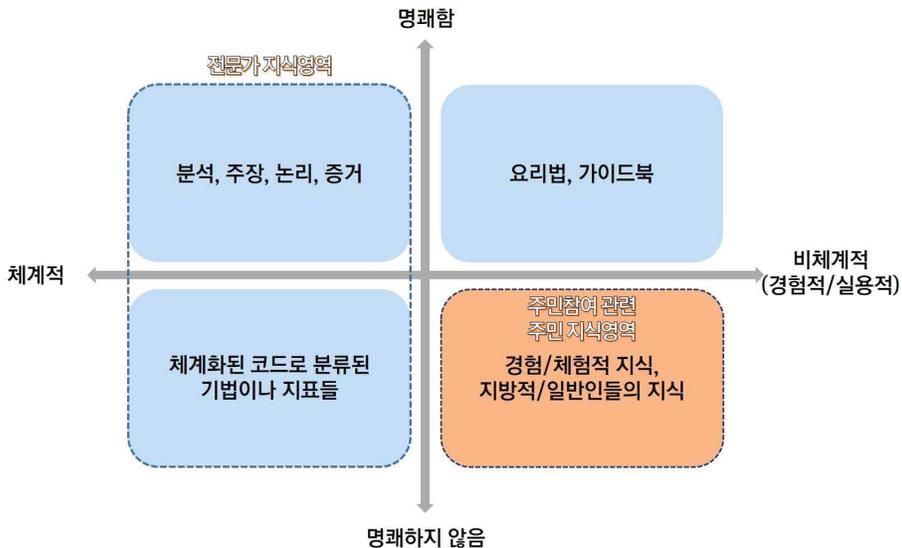
2. 현대사회와 마을공동체

1) 현대사회와 주민참여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국가와 시장이 지닌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동 협력을 필요로 함

4)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에 대해 서울시가 교육부터 컨설팅, 사업별 지원까지 총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현대사회에서는 정책적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 제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주민참여란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적 인식을 갖고 지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뜻함(최문형 외, 2014)
- 과거에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나 엘리트들의 과학적 지식만을 유효하게 인식하였으나, 사회가 다변화된 이후에는 주민이나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실용적 지식⁵⁾도 유효할 수 있음을 차츰 인지하게 됨(이태희, 2015)
-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주민 또는 현장 전문가들의 지식이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특수성을 고려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도시계획 분위기가 조성됨(이태희, 2015)



(그림 2-4) 지식 형태의 유형

출처: 이태희(2015)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5) 지방적 지식(local knowledge) 또는 일반인들의 지식(lay knowledge)을 의미함

2) 주민참여 유형

- 주민참여 유형은 참여방식, 참여정도, 수행(담당)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최문형 외(2014)는 주민참여 유형을 주민 참여정도와 공공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동적 참여’, ‘주민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 등으로 구분함
 - 먼저, 수동적 참여는 정부(공공)가 주도하는 정보제공형의 참여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및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둘째, 주민주도적 참여는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탐색하고 여론 형성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형태임
 - 마지막으로, 협력적 참여는 정부(공공)가 주제를 설정하고, 주민의 견해를 묻는 형태를 취하며, 환류를 거치는 양방향적 관계임
- 한편, Sherry R. Arnstein(1969)는 주민 참여정도와 역할·기능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는 주민참여 사다리이론(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을 제시하였음(이석우, 2015)
 - 주민 참여단계: 비 참여단계(Nonparticipation), 형식적 참여단계(Tokenism, 3~5단계), 실질적 참여단계(Citizen Power, 6~8단계)



(그림 2-5) 주민참여 사다리이론

출처: Sherry R. Arnstein(1969) 및 이석우(2015) 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 주민참여 사다리이론에 따르면 참여단계가 높아질수록 주민참여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결정권한도 강화됨
 - 주민참여에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3) 주민참여의 긍정적 효과

- 주민참여는 정책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최문형 외(2014)는 주민참여의 장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음
 - ① 행정적 차원에서 정부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 ② 정확한 지역문제의 진단과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 ③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 지자체와 소통함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음
- 영국 도시계획의 주민참여를 연구한 이태희(2015)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도시재생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시민의식 회복과 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성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시민 참여와 민주성 향상은 비록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참여 행위 자체가 민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참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등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언급함

3.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1)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의 관계

- 최근 우리나라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에서는 ‘도시재생’이 주요 화두로 논의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2조(정의)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함⁶⁾
 - 도시재생은 공동체 회복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도시부흥 전략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6)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6) 본 연구에서 논하는 도시재생이라 함은 도시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적 성격의 도시재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성시가지, 특히 쇠퇴노후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이태희(2015), 박세훈(2014) 등의 관련연구에서도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음

- 도시재생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다른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마을공동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임
 - 주민과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주인이자 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도시재생은 도시의 기억을 살리고 마을에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엮어서 정체성을 복원하여 미래 유산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동체 복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이(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2016년 전주뉴스 인터뷰 중에서

2) 마을공동체 참여의 중요성

-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사업은 대부분 마을공동체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마을만들기 등의 재생사업에서는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호혜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함(여관현, 2012)
 - 이는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제적인 의견과 지혜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의 활동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여관현(2012)은 마을만들기가 공동체 회복에 있어 ① 경험 공유과정을 거쳐 공동체 회복의 기초를 제공하고, ② 다양한 행위주체 간의 조율과 경험을 통해 주민 자력의 방식을 터득하며, ③ 구성원 간의 호혜성, 마을의 활력과 시너지 증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제2절 관련 법·제도 검토

1. 공동체 관련 법규 :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음
-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를 설정하고 있음
 -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나누어짐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 도시재생 전략계획

-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도시 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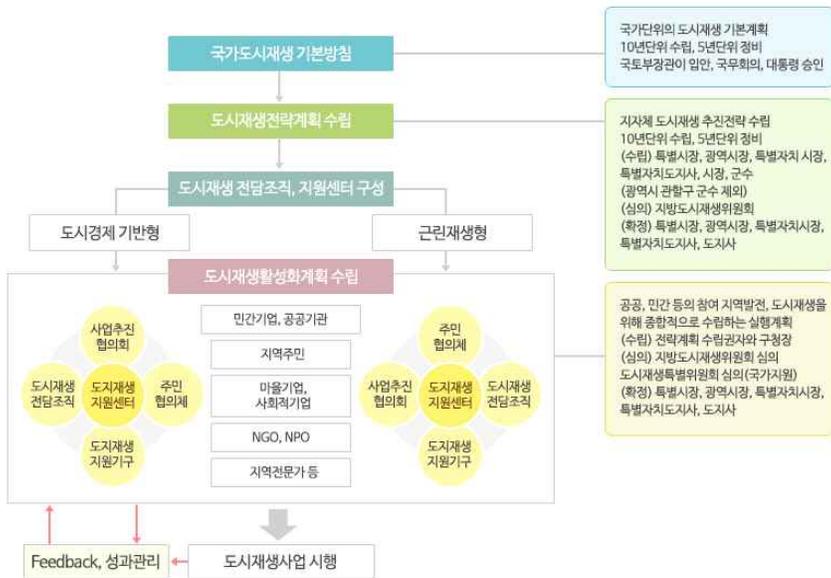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

시재생활성화계획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등을 포함함
- 「도시재생법」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에 공동체 활성화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2-7)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출처: 경기도시공사 (<http://www.gic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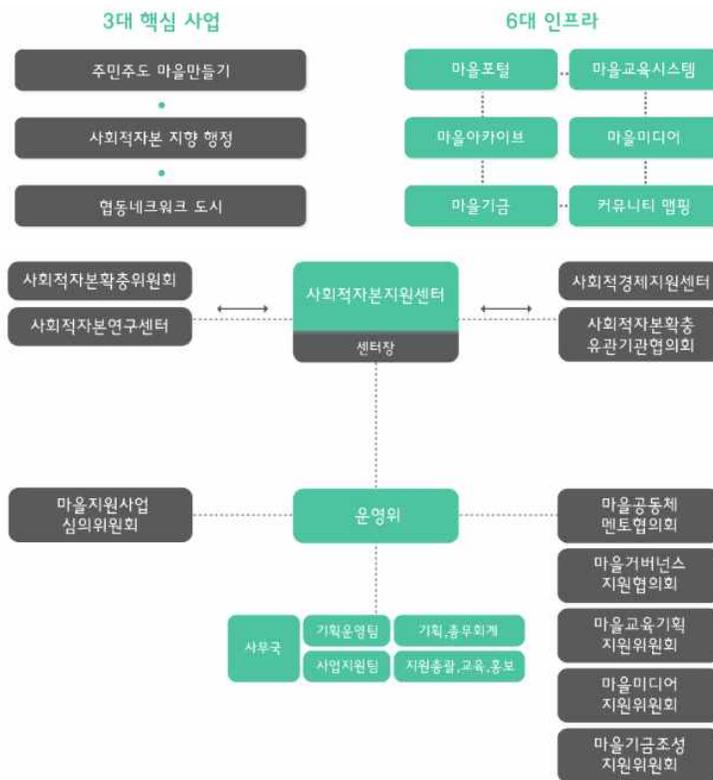
2. 대전시 공동체 관련조례 검토

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지난 2013년 2월에 제정됨⁷⁾
 - 조례 제2조(정의)에서는 시민공동체를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음
- 대전시 조례에서는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①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 ②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 ③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 ④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공동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 ⑤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 한편, 시 조례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역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며,

7)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제2조(정의))

-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 시정에 기본원칙(제3조)을 반영하고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함⁸⁾
- 또한, 시 조례에서는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제시함⁹⁾
-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는 시민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대전시에서는 2013년 10월에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임



(그림 2-8)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영역과 조직체계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http://socialcapital.kr>)

8)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및 제5조(시장의 책무)
9)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제13조(사회적자본 지원센터)

2) 대전광역시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유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공동체’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공동체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물질 또는 경험 등을 ‘공유’하는 활동과 이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서는 공유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눔으로써 자원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을 공유단체, 공유기업 또는 공유네트워크로 지정할 수 있음¹⁰⁾
 - 공유네트워크란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유활동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임
- 대전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공유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음



(그림 2-9) 2015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 설명회
출처: 나와유(I&You)의 오감만족 이야기 (<http://daejeon-story.tistory.com>)

10)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지정)

3)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시 조례 제7조의2(공동주택 관리업무 비용지원)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조례 제7조의3(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유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표 2-3〉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중 공동체 지원사항

구분	관련 내용
제7조의2 (공동주택 관리업무 비용지원)	<p>시장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우선하여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경로당·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CCTV 설치 및 보수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제7조의3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p>① 시장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절감 운동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2. 마을소식지·홈페이지 운영 등 주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음악회·체육대회·바자회 등 주민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교통안전·청소년지도·방법활동·청소·제설 등의 자원봉사활동 5. 공구·도서·장난감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 이하 생략 -</p>

3. 타 지자체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검토

-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또는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월 현재 전국 약 49개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가운데, 22개 구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함

〈표 2-4〉 지자체별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조례 제정현황(2016년 2월 현재)

구분	제 정 현 황		조례수
	본청	구청	
서울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송파구	23
부산	-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4
대구	○	동구	2
인천	○	중구, 부평구, 옹진군	4
대전	-	-	-
광주	-	광산구	1
울산	-	동구	1
세종	○	-	1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용인시	6
강원	○	-	1
충남	-	공주시, 보령시	2
전북	-	전주시	1
전남	○	광양시, 무안군	3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조례의 경우,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 조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됨(<표 2-5> 참조)
 - 다른 지자체 조례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표 2-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의 구성(서울시)

구분	세부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의2(지원사업 선정) 제10조의3(보고 등) 제11조(평가·포상)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5조(구성) 제16조(임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회의 등) 제19조(의견청취 등) 제20조(회의록) 제21조(수당)
제4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제22조(종합지원센터 설치) 제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제24조(관리 및 운영) 제25조(지도 감독)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8조(시행규칙)

출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http://legal.seoul.go.kr>)

-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관련사항은 전반적으로 법 보다는 지자체 조례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이는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한편, 대전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등에서 공동체 관련사항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지만, 여러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민·공동체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서 볼 때,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절 대전시 재생사업 지원체제 개편

1.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1) 배경

-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1일 대전시 도시재생사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할 ‘도시재생본부’를 새롭게 신설하였음
- 도시정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종래 재개발·재건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정비방식에서 탈피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종래의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국’과 ‘도시재생본부’로 분리 설치하고, 도시주택국 내의 관련 사무 및 타 부서에 산재해 있는 재생관련 사무를 총집결하는 등 대전시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토록 함



(그림 2-10)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홈페이지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2) 조직구성 및 담당기능

- 도시재생본부는 3과 10담당으로 구성되며, 기존 도시재생과, 도심활성화 기획단 업무 및 사회적자본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함
 - 도시재생과(11): 재생정책, 공동체지원, 문화재생, 구)도청사관리, 도청사

활용TF 담당

- 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 마을가꾸기, 고속철도변정비 담당
- 도시정비과: 재정비촉진, 도시환경정비, 주거정비개선 담당



(그림 2-11)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조직구성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대전시 원도심 재생사업 가속화”
 내년 도시재생본부 신설… 체계적 전략 추진
 -대전일보, 2014.12.25.일자-

대전시가 민선 6기 핵심 현안인 원도심 재생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초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 등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3급 기구인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한다. 도시재생본부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중회의실에 위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본부는 사회·경제·문화 등 도시 전반의 포괄적 분야의 재생전략 수립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본부는 도시재생정책과와 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등 3개 과로 구성돼 기존 시 조직인 도시재생과와 도심활성화기획단 업무를 비롯, 사회적자본 등의 사무를 총괄 담당하게 된다. 도시재생정책과는 재생정책과 사회적자본·공유경제·마을만들기 등 공동체지원, 근대문화예술특구·철도문화예산 등 문화재생 업무를 맡게 되며 균형발전과는 도심활성화와 마을가꾸기, 고속철도변정비 등을 운영한다. 도시정비과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총괄 및 역세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관장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이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재생에서 마을공동체 구축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을 수용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도시재생은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민(民) 중심의 마을 공동체문화 구축, 예술촌 조성, 공유경제 확산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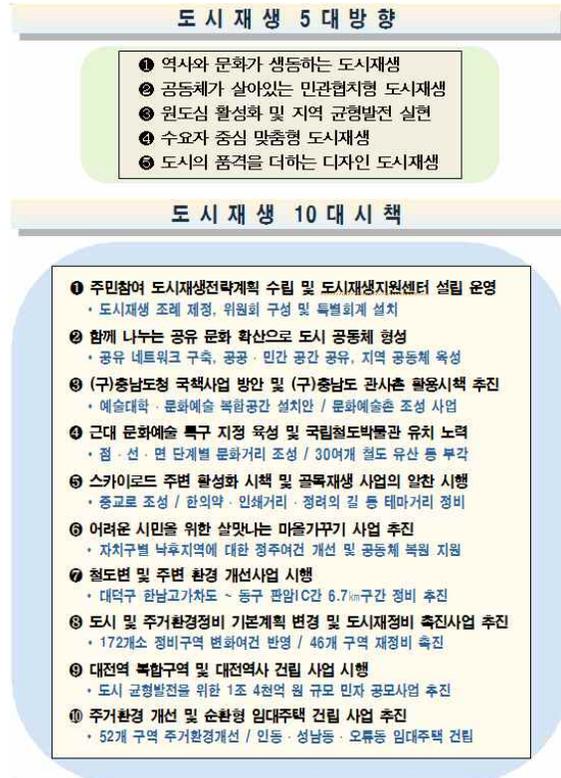
...

시 관계자는 "내년 초 도시재생본부가 신설되면 낙후되고 위험지대로 전략한 원도심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개발은 최대 억제하고 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문화축제 등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 2015년 도시재생본부 출범 당시 '도시재생정책과' 에서 명칭을 조정함

3) 세부업무

□ 도시재생 추진방향



(그림 2-12) 대전시 도시재생의 방향과 시책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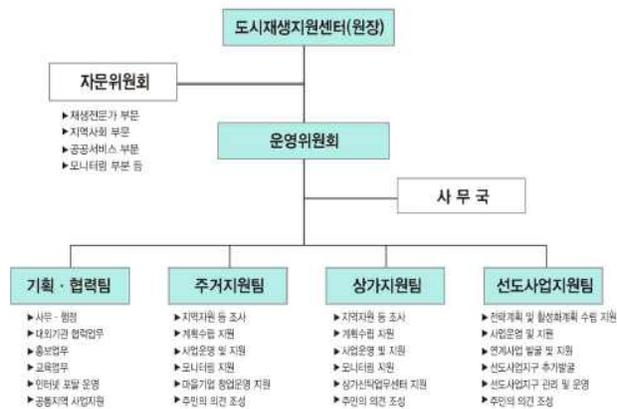
□ 주요 업무

- 도시재생 시책 총괄 조정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동체지원, 문화재생, (구) 충남도청사 및 이전부지 활용 관련 사항
- 도심활성화, 마을가꾸기, 고속철도변 정비에 관한 사항
-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2.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1) 설치근거 및 배경

- 「도시재생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하여금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④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근거하여 대전시에서는 지난 2015년 6월 24일 구)충남도청에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국가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이후,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버넌스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그림 2-1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체계 구성(예)

출처: 국토교통부(2016),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 역할 및 기능

- 물리적 정비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사람·공간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

기 위한 민과 관의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음¹²⁾

- 민·관·학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 추진 도모
-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추진하는 대전 도시재생의 5대 기본방향 및 10대 시책 관련사업 추진 지원

3) 주요 사업

- 도시재생정책자문단과 시·구·유관기관 상생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전략사업의 구체화 및 신모델 발굴, 주민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함
-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사업은 크게 ‘재생정책 지원’, ‘시민역량 강화’, ‘도시재생 소통’, ‘사업기반 구축’ 등으로 구분됨
-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 사업내용 중 교육(도시재생아카데미 등), 재생 네트워크, 협의체계 구축, 콘텐츠 공모 및 개발, 마을자원 조사 및 발굴 등 다수가 본 연구의 핵심내용(도시재생, 공동체 교육 등)과 연계되어 있음



(그림 2-14)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사업(2016년)

출처: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jrc.kr>)

12) 타 지자체 중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 중으로, 대전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이며, 부산시(2015.06.29.)와 시흥시(2016.10.13.)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 중임.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위탁, 3년 예정)할 예정임



(그림 2-15)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활동 및 주요 발간물
출처: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jrc.kr>)

제4절 선행연구 동향

- 공동체 관련연구는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측면과 주민참여 측면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음

1. 공동체 활성화 관련 연구

- 여관현(2013)은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을 사례로, 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 형성과정을 분석함
 - 마을의 관심과 참여, 공통 문제의식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공동체 회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함
- 신화경 외(2010)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소속감 증진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주민제공 및 주민요구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함
 - 프로그램의 소극적 공급, 협소한 공간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요구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의 공급 필요성을 제시함
- 박병춘(2012)은 지역발전과 공동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모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도출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구심점과 주체(사람) 양성 필요성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가치발견 및 네트워크화 과정이 중요함을 밝힘
- 김영정(2006)은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있어 지역 특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원칙 정립과 실천이 사업 성공의

기본조건임을 밝힘

- 또한, 현재의 ‘샐터’를 사회정의 및 보편적 가치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음

2. 도시재생 및 주민참여 관련 연구

- 이기태 외(2016)는 커뮤니티 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을 밝힘
 - 이는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김권수(2014)는 서울시 도시재생의 주요과제인 환경·경제·생활 재생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생활·환경재생이 주민만족도와 공동체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환경·생활·경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밝힘
- 최문형 외(2015)는 서울시민·전문가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분석함
 - 주민들은 투표, 설문조사 등 개별적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협력적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참여를 원하지 않는 성향이 있음을 밝힘
 - 이는 주민들이 체계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협력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 구성원 간의 공유된 감정적 연계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태희(2015)는 도시재생에서 공동체 참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영국의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사례로 공동체 참여이론의 정책 반영패턴을 살펴봄-

공동체 참여가 도시재생을 실현에 있어 실제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밝히고,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체 참여의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김학실(2013)은 청주시 원도심(사직2동 양달말)을 사례로, 도시 재생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마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의 마을기업 활용방안을 논의함
 - 연구 결과,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마을기업 역할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 등 주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재생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밝힘

3. 연구의 차별성

-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공동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임
- 대전시에서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대전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체계적인 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제 3 장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제1절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제2절 문화공동체사업

제3절 마을기업

제3장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제1절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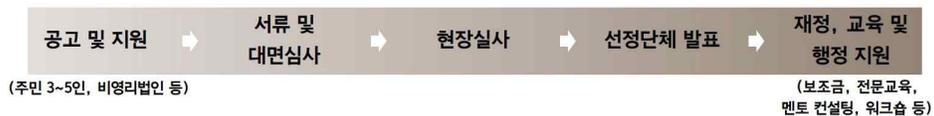
1. 개요

□ 정의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주도 사업”을 의미함
- “사람 중심의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목표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됨

□ 추진체계 및 방식

- 대전시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전시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대상은 공동체활동·사업에 관심있는 주민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며, 서류 및 대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사회적자본센터를 중심으로 행·재정, 교육 등을 지원함



(그림 3-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선정절차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 사업의 지원 주체는 초기 ‘대전시·자치구’ 중심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

적자본지원센터'로 전환됨

- 2013년에는 대전광역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가 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각 구청에서 사업접수 및 상담 역할을 담당하였음
- 2013년 10월 이후에는 지원기관이 전담하여 지원함(2013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개소)

“대전시, 18일부터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아시아투데이, 2016.01.17.일자-

대전시는 2016년 대전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는 공유문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공유마을’과 대전형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사업)으로 총 3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유마을’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수의 공동체가 마을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해 공유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 단체에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전형좋은마을 만들기사업은 4단계(씨앗-새싹-열매-숲)로 세분화해 114개 공동체를 공모해 지원한다. ‘모이자 사업(씨앗-새싹)’은 자발적 의지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씨앗단계(발굴)와 지역 내 구체적인 공동체 활동을 개시하는 새싹단계(성장) 모임 50개에 3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해보자사업(열매)’은 마을사업에 적합한 모델을 구체화하고 마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30개는 200만원 이내, 나머지 30개는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가꾸자사업(숲)’은 마을 안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문제 해결에 대한 복합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는 4개 단체에 15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그림 3-2)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포스터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 사업유형

- 대전시 좋은마을 만들기사업은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등 성장단계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향하며, 유형별로 내용과 지원규모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 모이자 사업은 신규공동체 발굴 지원사업임
 - 공동체 형성 초기단계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됨
- 해보자 사업은 마을성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임
 - 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육아, 마을텃밭가꾸기 등 2개 이상 마을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업사업임
- 가꾸자 사업은 마을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사업임
 - 공간거점 형성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으로, 2개 이상 마을공동체 간의 공동 협력사업 등을 의미함

2. 추진현황

- 2016년 9월까지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참여한 공동체수는 총 585개에 이룸
- 2013년에는 참여공동체수 221개에 이르렀으나, 2014년 147개, 2015년 112개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참여인원 역시 2013년 3,200명에서 2014년 1,570명, 2015년 1,030명으로 감소함
 - 그러나, 2013년에는 자치구청 주도의 지원사업으로 관변단체 또는 국민운동단체의 참여가 높았으며, 중간조직이 설립 운영된 2014년 이후 내부 역량 강화 및 외부 네트워크 형성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판단됨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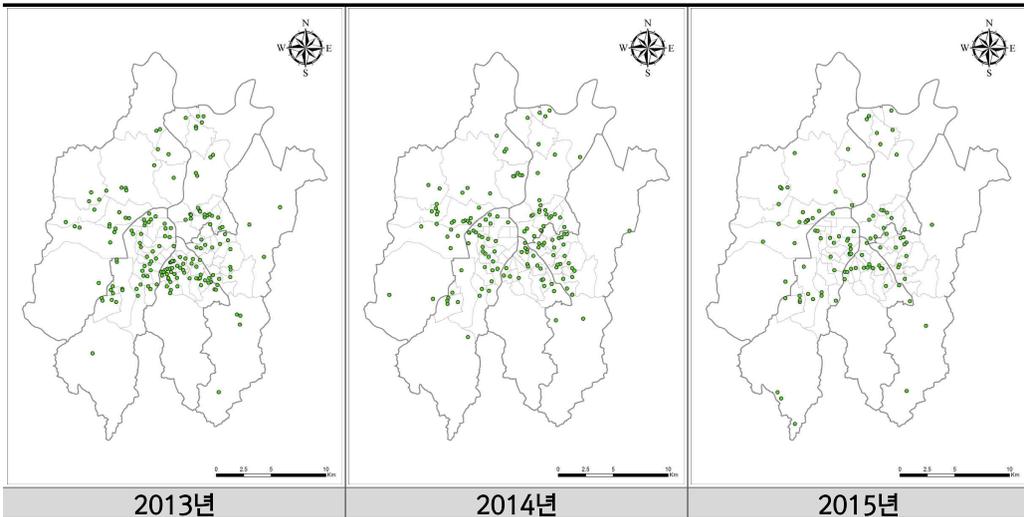
13)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5), 2015년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성장사례조사 사업 결과 보고서.

<표 3-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연도별 추진현황

년도	참 여 공동체수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원
		접수	선정	접수	선정	접수	선정		
계	585	440	389	465	181	52	15	1,515,942	
2013년	221	209	166	168	50	23	5	631,588	3,200
2014년	147	109	103	90	40	20	4	431,429	1,570
2015년	112	70	70	88	40	2	2	274,585	1,030
2016년	105	52	50	119	51	7	4	223,340	774

출처: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내부자료(2016년 9월 현재)

주: 모이자사업(신규공동체 발굴지원사업), 해보자사업(기존공동체 지원사업), 가꾸자사업(마을공동체간 공동협력사업 / 2014), 공동체우선복원지역 지원사업(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리더 육성사업 / 2015)



(그림 3-3)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연도별 분포

- 전체 공동체 활동(585건)의 95.7%(560건)가 주민모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15건(2.6%), 협동조합이 6건(1.0%) 등을 차지함
- 사업유형별로는 공동체형이 159건(27.2%)으로 가장 많고, 교육이 115건(19.7%), 환경생태가 108건(18.5%), 문화역사가 93건(15.9%) 등으로 높게 타남
- 공동체형은 사업 초기인 2013년에는 전체 사업의 20.4% 수준이었으나, 2015년 50.9%, 2016년 54.3% 등으로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 3-2〉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모임유형별 구성

(단위: 건수, (%))

구분	합계	주민모임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합계	585 (100.0)	560 (95.7)	6 (1.0)	15 (2.6)	4 (0.7)
2013년	221	219	2	-	-
2014년	147	134	1	12	0.0
2015년	112 (100.0)	106 (94.6)	1 (0.9)	3 (2.7)	2 (1.8)
2016년	105 (100.0)	101 (96.2)	2 (1.9)	- (0.0)	2 (1.9)

출처: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내부자료(2016년 9월 현재)

〈표 3-3〉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사업유형별 구성

(단위: 건수, (%))

구분	합계	의제	경제	교육	문화 역사	환경 생태	복지	갈등조 정생활	마을 미디어	공동 육아	공동 체형	청년	동네 부업
합계	585 (100.0)	11 (1.9)	3 (0.5)	115 (19.7)	93 (15.9)	108 (18.5)	33 (5.6)	18 (3.1)	13 (2.2)	25 (4.3)	159 (27.2)	3 (0.5)	4 (0.7)
2013년	221	-	-	53	34	53	22	6	5	3	45	-	-
2014년	147	11	3	44	25	33	11	12	8	-	-	-	-
2015년	112 (100.0)	- (0.0)	- (0.0)	9 (8.0)	18 (16.1)	17 (15.2)	- (0.0)	- (0.0)	- (0.0)	11 (9.8)	57 (50.9)	- (0.0)	- (0.0)
2016년	105 (100.0)	- (0.0)	- (0.0)	9 (8.6)	16 (15.2)	5 (4.8)	- (0.0)	- (0.0)	- (0.0)	11 (10.5)	57 (54.3)	3 (2.9)	4 (3.8)

출처: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내부자료(2016년 9월 현재)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자치구별 분포를 보면 연도별 최다 지원구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대전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패턴을 보임
- 2013년에는 서구와 중구가 각각 58건으로 사업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중구는 모이자, 서구는 해보자 사업건수가 많았음
- 지원건수와 지급액 기준으로 2014년에는 유성구(35건), 2015년에는 서구(29건)가 가장 많았으며, 2016년 9월 현재에는 대덕구(33건)와 서구(28건)가 많음

〈표 3-4〉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자치구별 분포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3년	계	221	631,588	166	309,592	50	234,396	5	87,600
	동 구	39	112,833	30	56,045	8	36,788	1	20,000
	중 구	58	154,392	47	88,942	10	45,450	1	20,000
	서 구	58	162,812	43	75,535	14	67,277	1	20,000
	유성구	31	96,348	20	39,270	10	49,478	1	7,600
	대덕구	35	105,203	26	49,800	8	35,403	1	20,000
2014년	계	147	431,429	103	204,154	40	195,275	4	32,000
	동 구	29	86,292	20	39,785	8	38,507	1	8,000
	중 구	21	65,190	15	29,670	4	19,520	2	16,000
	서 구	33	88,884	25	49,029	8	39,855	0	0
	유성구	35	108,800	23	45,800	11	55,000	1	8,000
	대덕구	29	82,263	20	39,870	9	42,393	0	0
2015년	계	112	274,585	70	70,000	40	164,585	2	40,000
	동 구	15	49,217	4	4,000	11	45,217	-	-
	중 구	27	71,245	19	19,000	7	32,245	1	20,000
	서 구	29	77,313	19	19,000	9	38,313	1	20,000
	유성구	22	29,626	19	19,000	3	10,626	-	-
	대덕구	19	47,184	9	9,000	10	38,184	-	-
2016년	계	105	223,340	50	15,000	51	161,340	4	47,000
	동 구	16	43,840	6	1,800	9	27,040	1	15,000
	중 구	14	35,700	9	2,700	4	18,000	1	15,000
	서 구	28	49,300	16	4,800	11	34,500	1	10,000
	유성구	14	23,600	6	1,800	8	21,800		
	대덕구	33	70,900	13	3,900	19	60,000	1	7,000

출처: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내부자료(2016년 9월 현재)

주: 2015년 가꾸자 사업에 공동체우선 복원지역 포함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참가자격은 2014년까지 '7인 이상 주민모임,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였으나, 2015년부터는 '3~5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협동조합지원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됨
 - 지원규모는 모이자 사업이 200만원에서 60만원 규모로 낮아짐
- 컨설팅 지원 형태는 초기 획일적·종합적 컨설팅 방식에서, 모임의 목적과 성숙도를 고려한 단계별 또는 맞춤형 지원 형태로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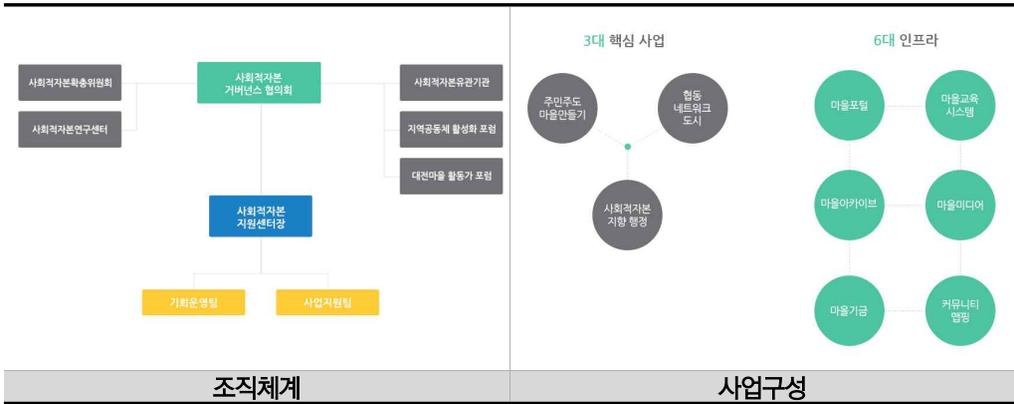
〈표 3-5〉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내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비	• 631백만원	• 431백만원	• 274백만원	• 223백만원
참가자격	• 7인 이상 주민모임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 7인 이상의 주민모임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 협동조합지원법에 의한 협동조합	• 3~5인 이상의 주민모임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 협동조합지원법에 의한 협동조합	• 3~5인 이상의 주민모임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 협동조합지원법에 의한 협동조합
지원규모 및 사업수	• 총 221개 사업(226개) -A형(~200만원): 166개 -B형(~500만원): 50개 -C형(~2,000만원): 5개	• 총 147개 사업 -A형(~200만원): 103개 -B형(~500만원): 50개 -C형(~2,000만원): 5개	• 총 112개 사업 -A형(~100만원): 70개 -B형(~500만원): 40개 -공동체우선복원지역지원 사업(~2,000만원): 2개	• 총 105개 사업 -A형(~30만원): 50개 -B형(~500만원): 51개 -C형(~1,500만원): 4개
모집횟수	• A·B·C형: 1회(2월)	• A형: 2회(1·4월) • B·C형: 2회(1월)	• A·B형: 1회(2월)	• A·B형: 2회(2·4월)
컨설팅 지원	• 획일적·종합적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모임 성숙도 등 고려 단계별 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모임 성숙도 등 고려 단계별 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모임 성숙도 등 고려 단계별 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
교육 지원	• 자치구별 집합 교육: 마을사업의 이해와 회계	• 사업전 참여자교육(회계 등) • 사업중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 공동체 시작학교 • 신규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 마을활동가 전문교육	• 신규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 사업중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 마을활동가 전문교육
추진 주체	• 시+자치구 • 하반기부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출처: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내부자료(2016년 9월 현재)

3. 지원기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기관인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확충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사회적자본의 바탕이 되는 시민공동체를 돕고 다양한 시민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됨
-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①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및 시민공동체 조직간 연계협력, ② 민관협력 증진 및 마을활동가 육성, ③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④ 시민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함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업무는 ‘공동체지원담당’에서 추진



(그림 3-4)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업구성

자료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ocialcapital.kr>)

○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특징과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특징: 광역단위 지원체계
- 장점: ① 현장 활동가들이 멘토로서 현장지원 보조(peer-consulting): 확대와 체계화 필요, ② 공유네트워크 지원과 마을공동체지원 융합, ③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설계, ④ 구별 마을넷을 통한 자원연계, 네트워크 형성 등 당사자 지원체계 강화

제2절 문화공동체사업

1. 개요

□ 정의

- 문화공동체사업이란 “주민과 작가들이 함께 창작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문화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지역 주민과 지역기반 작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마을에 잠재한 예술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일상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부활 프로젝트” 성격을 지님



(그림 3-5) 문화공동체사업의 정의

- 문화공동체사업은 지역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시작됨
 - 자발적 공동체 활동에 기초하여 상호 소통함으로써 특색있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음
- 문화공동체사업의 추진방향은 ① 대전만의 특색 있는 주민밀착형 프로젝트로 자리매김, ② 우리 지역만의 문화적 특성(공동체성) 발견, ③ 지속가능한 자생적 문화공동체 발굴 등의 세 가지로 정리됨

□ 추진체계 및 방식

- 2015년까지는 공모방식 또는 재단에서 직접 사업대상지를 발굴(자체기획)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인원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2016년 이후에는 해당 구청의 추천방식으로 전환함¹⁴⁾(시비 100% 지원)

〈 공모방식과 자체기획 방식 비교 〉

- 공모방식: 주관단체를 공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문주관단체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주관단체가 재단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음
- 자체기획 방식: 대상지 선정에서 예술가 선정까지 대전문화재단이 직접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담당자의 기획력 의존도가 높음. 공모방식에 비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나 재단의 사업방향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업유형

- 문화공동체 프로젝트 「동거동락(洞居同樂)」은 주민 창작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사업임
 - 「동거동락(洞居同樂)」은 마을공동체 및 예술단체 대상사업으로 지역 문화활동을 통한 생활 속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연대의식 강화를 도모함
 - 동거(洞居)형의 ‘가가호호(家家戶戶)’와 동락(同樂)형의 ‘희희낙락(喜喜樂樂)’으로 구분됨
- 가가호호(家家戶戶)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공공예술 활동이나 문화예술 프로젝트임
 - 지역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프로젝트임
- 희희낙락(喜喜樂樂)은 네트워크에 기반한 문화예술 소모임 활동임
 -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과제 선정은 대전 문화예술계 관련 세부주제 중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하여 대화·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14) 각 해당구청에서 문화소외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천함

〈표 3-6〉 「동거동락(洞居同樂)」의 세부유형 특징(공고 기준)

구분	동거(洞居)형 / 가가호호(家家戶戶)	동락(同樂)형 / 희희낙락(喜喜樂樂)
의미	•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밀착형 프로젝트로, 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발견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	• 문화예술분야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특성을 발견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문화공동체 프로젝트
유형	•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 공공예술형(공간, 환경, 주민)	• 네트워크 기반의 담론형성 프로젝트 • 문화예술 소모임
신청자격	• 마을공동체 및 예술단체	• 대전광역시 기반 문화예술 소모임(6인 이상)
대상사업 (과제)	•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 예술가-마을주민의 소통-협력 프로젝트 • 공공예술형 프로젝트 • 공간, 환경, 주민 간의 새로운 대안 제시 프로젝트	• 문화공동체 융복합(예술+과학), 문화 예술교육, 원도심 활성화, 대전스타일 등
지원금액/규모	• 단체당 최대 3,000만원(2~3단체)	• 소모임당 최대 200만원(3~5단체)
지원내용	• 활동비, 홍보비, 자료집 발간 등 지원 • 활동/성과보고서, 대외활동, 워크숍 참석 등 전제	• 활동비, 홍보비, 자료집 발간 등 지원 • 활동/성과보고서, 대외활동, 워크숍 참석 등 전제

출처: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

〈표 3-7〉 희희낙락(喜喜樂樂) 프로젝트 대상사업

키워드	예시
문화공동체	• 대전의 문화적 특성(공동체성) 발견 및 문화공동체 발굴 등
융복합(예술+과학)	• 대전의 예술·과학분야 융합 방안, 독창적 콘텐츠 아이디어 등
문화예술교육	• 대전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콘텐츠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연구 및 콘텐츠 개발 등
대전스타일	• 대전만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 개발
기타	• 기타 지역문화 연구 및 활용이 가능한 참신한 주제

출처: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

2.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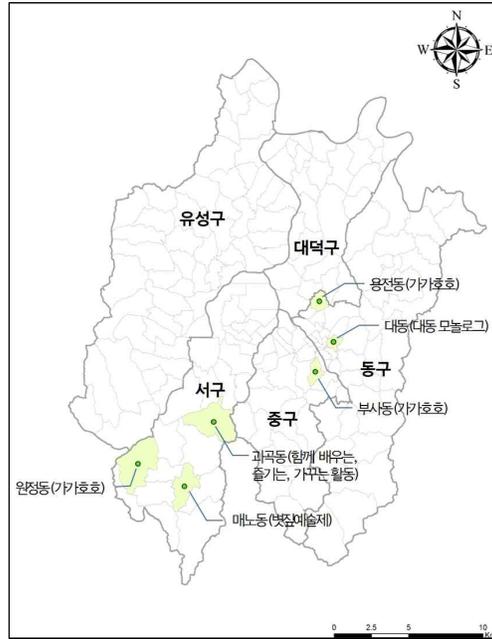
- 2012년에 문화로 가꾸는 마을 <가가호호>로 시작된 문화공동체사업은 이후 중구 부사동, 서구 원정동·매노동·괴곡동, 동구 용전동·대동을 중심으로 진행됨
- 대부분 1년 미만의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원정동만 2012~2013년에 걸쳐 가가호호 사업이 동거동락 사업으로 확대 발전함
- 2015년까지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직접 대상지를 발굴하였으나, 인원과 시간 한계로 인해 2016년부터 해당 구청의 추천방식으로 전환하였음¹⁵⁾

<표 3-8> 연도별 문화공동체사업 개요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컨 셉	문화로 가꾸는 마을 <가가호호>	창작활동으로 공동체성 회복 <동거동락>	예술문화공동체 만들기	예술문화공동체 만들기	줄곧 장승문화 만들기
기 간	2012.10.~ 2013.2.	2013.3.~ 2013.12.	2014.6.~ 2015.3.	2015.10.~ 2015.12.	2016.8-12
장 소	서구 원정동 동구 용전동	서구 원정동 중구 부사동	서구 매노동 동구 대동	서구 괴곡동	동구 비룡동
운영형태	재단 자체기획	공모	재단 자체기획	재단 자체기획	공모
운영주체	대전문화재단	지원단체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사)대전공공미술연구원
내 용	• 벗짚미술제(마을잔치) • 창작씨 만들기, 타일 벽화	• 벗짚미술제(마을잔치) • 마을잡지 만들기, 벽화 등 • 문화네트워크 • 조사연구(연구용역)	• 벗짚미술제(마을잔치) • 대동 모놀로그(1인 연극)	• 마을설화인형극, 천연염색 • 방문객 참여(발도장 짚기), 마을잔치 • 이야기문패, 벽화, 집 울타리 리폼 등	• 미니장승만들기, 솟대 만들기 체험 • 장승벤치 설치, 토담벽만들기, 장승만들기 • 아름다운 우물 만들기 등
예 산	100,000천원	100,000천원	95,000천원	90,000천원	38,000천원

출처: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

15) 2016년에는 서구 기성동과 동구 비룡동이 추천대상지였으며 최종적으로 동구 비룡동이 선정됨



(그림 3-6) 문화공동체사업 추진지역

3. 지원기관: 대전문화재단

- 대전문화재단은 전문성에 근거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새로운 요구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됨
 - 2009년 6월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9년 11월에 설립함
-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예술 창작, 보급 활동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사업 등 대전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것임
 - 문화공동체사업 지원부서 역할: 문화공동체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운영



(그림 3-7) 대전문화재단의 비전과 미션

출처: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dcaf.or.kr>)

- ‘시민 누구나 문화를 즐기는 대전’을 비전으로 하는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생’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 삶에 행복이 담긴 공동체를 구현코자 함
 - 문화예술로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일상화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재생을 도모하는 전략을 마련함
-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전략 달성을 위한 과제로 ‘문화로:느끼다’, ‘문화로:만나다’, ‘문화로:보다’, ‘문화로:꿈꾸다’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3-9〉 대전문화재단의 추진과제

구분	과제명	세부 내용
문화로:느끼다 (시민 예술향유 극대화)	예술지원, 이제 대전문화의 주인은 시민	• 예술지원체계 개편 • 생활예술공동체 조성운영 지원 • 예술교육 프로그램 다각화
문화로:만나다 (문화 네트워크 조성)	소통과 배려, 문화로 함께 살기	• 문화다양성 존중 다문화사회 구현 •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발굴지원
문화로:보다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재생, 문화로 다시보기	• 거주민과 유입인구 문화소통 극대화 • 예술가·시민 문화재생 아이디어 수렴
문화로:꿈꾸다 (대전문화정체성 확립)	글로벌리즘, 세계속의 대전	• 문화자원 연구조사 강화 •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대표축제 정착 노력 • 국제적 도시브랜드 확립

출처: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dcaf.or.kr>)

- 대전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문화예술지원, 시민문화지원, 정책연구·경영, 문화공간운영, 교육지원, 문화나눔 등으로 구분됨
 - 문화공동체사업, 원도심활성화 시민공모사업, 문화예술조사연구 및 평론 활성화지원, 찾아가는 문화활성화지원, 기타 공연·축제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재생사업과 연관되어 있음

〈표 3-10〉 대전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구분	세부 사업
문화예술지원	• 예술창작활동지원, 아티언스 대전, 차세대artiStar지원, 레지던시지원, 국제 문화예술교류지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문화예술조사연구및평론활성화 지원, 찾아가는문화활성화지원, 지역오페라단 공연활동지원, 대전국악축전출연단체공모, 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지원 등
시민문화지원	• 대전마을합창단 운영, 대전마을합창축제,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건우 직녀축제,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대전인디음악축전, 지역예술가공연 및 아트프리마켓, 원도심활성화 시민공모사업, 문화공동체사업, 생활속예술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경영	• 문화포럼 [잇슈 : (ISSUE)], 정책세미나, 연례보고서 발간, 대전문예연감 발간
문화공간운영	• 대전예술가의집, 무형문화재전수시설, 대전문학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교육지원	•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합문화이용권	• 통합문화이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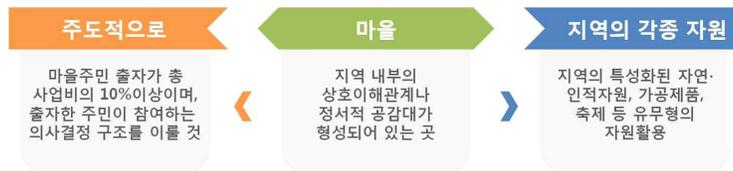
출처: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dcaf.or.kr>)

제3절 마을기업

1. 개요

□ 정의

-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을 위한 친환경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함¹⁶⁾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함
-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키워가는 단체이자 사업으로,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주민’과 ‘지역 자원’이 결합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함



(그림 3-8) 마을기업의 개념

출처: 인천마을기업 홈페이지(<http://se.incheon.go.kr>)

-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사회적기업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¹⁷⁾

16) 마을이란 “ 타 지역과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동(洞), 리(里) 또는 제4조의2 제4항의 행정 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등이 단위가 될 수 있음

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함(「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표 3-11〉 유사 개념과의 비교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 마을공동체 활성화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발전과 공익 증진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권익향상 (고용불안해소, 임금향상) • 지역사회에 공헌
사업주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 각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근거법·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기본법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 노인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인정, 경제안정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익, 사회적 가치 추구, 지역경제 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의 70% 이상이 마을주민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1인 1표)

출처: <http://blog.naver.com/redis12/140198075140>

□ 추진체계 및 방식

- 대전시 과학경제국 일자리정책과와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가 추진함
 - 행정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등
- 마을기업 희망 시민 및 단체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최소 5명이 출자한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뤄야 함
 - 희망하는 단체 및 시민은 같은 자치구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이 출자하고, 출자자 모두 소정의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교육접수는 접수시기에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함

〈표 3-12〉 마을기업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조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¹⁸⁾인 자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¹⁹⁾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²⁰⁾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 • 수익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출자자 지역 조건과 동일) 주민 고용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은 사회 전체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고,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 •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자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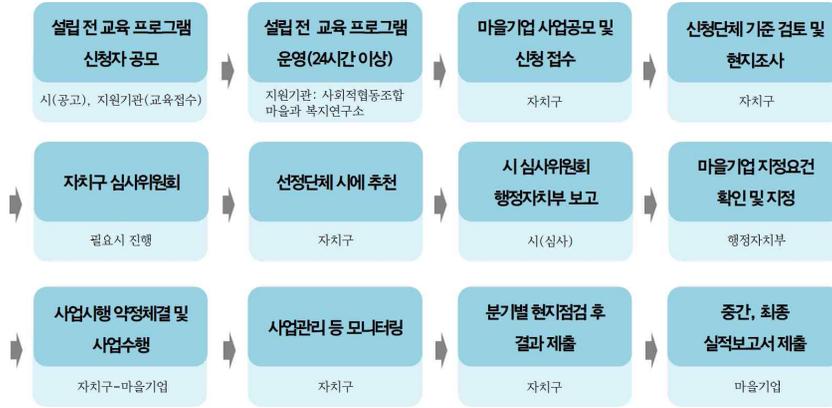
출처: 대전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문 참조

- 설립 전 교육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에서 담당함
 - 교육 장소 : 옛 충남도청과 대전사회적경제 협동의 집에서 실시함
- 공모 및 심사과정을 거쳐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1년차는 최대 5천만 원, 2년차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안정된 일자리 및 정기적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으로 활동하게 됨

18) 법인이 아닌 경우, 자치구 심사(검토)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19) 지역 범위는 ‘구(자치구)’ 기준이나 시에서 인정시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함. 지역주민 비율(70%) 산정에 있어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으로 함

20)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50% 이상 출자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그림 3-9) 마을기업 사업추진 절차

출처: 대전광역시 모집공고문, 인천광역시 참조

□ 사업유형

- 대전형 마을기업 유형은 ‘공장점포형’, ‘생활·여가·문화형’, ‘도시마을공동체형’, ‘생태농업 및 로컬푸드형’ 등으로 구분됨

<표 3-13> 대전형 마을기업 유형

구분	개념	대전시 대표 유형
공장점포형	• 공장이나 점포 등 생산(제조)공간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 판매를 병행하는 유형	• 먹을거리, 목공예품, 수제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이 해당
생활·여가·문화형	• 여가 및 문화예술, 평생학습을 매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유형	• 과학기술 관련 은퇴 연구원들이 설립한 마을기업 보유 • 원도심의 경우 극단형 마을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
도시마을공동체형	• 주거와 생활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여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유형	• 마을카페 유형이 많으며, 공동체 소모임, 품앗이경제활동, 먹을거리 및 수공예품 제조 등 다양 • 방과후 마을학교와 유아용품 및 커뮤니티 공간 대여 등이 해당
생태농업 및 로컬푸드형	•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도농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이 해당	• 대전 근교농업 종사자 중심으로 공동 작물을 재배·판매하고, 농촌문화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이 해당

출처: 마을과복지연구소 내부자료

□ 도시재생과의 관계

- 「도시재생법」에서는 ‘마을기업’을 포함한 지역주민단체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마을기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에 직접적인 형태로 참여하거나, 재생사업의 주체(공동체)로 활동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과 소통,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용품 공급, 지역 문화 및 자원 활용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일부 마을기업의 경우, 주민교육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 상담, 교육, 컨설팅, 자원연계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보리와밀)

<표 3-1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도시재생법」)

구분	관련 내용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2.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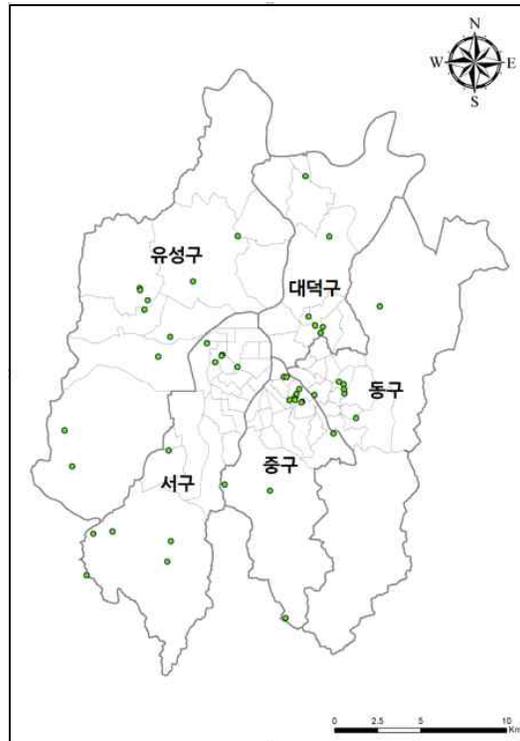
- 대전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2개의 마을기업을 지정하였으며, 12개 소가 반납·취소하여 현재 총 50개를 운영하고 있음

- 구별로는 중구, 유성구가 각각 13개소로 가장 많고, 서구 10개소, 동구 8개소, 대덕구 6개소 등 대전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의 경우, 매출 및 일자리 창출수가 감소 추세로, 대부분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표 3-15〉 대전시 구별 마을기업 현황(2010~2016)

구 분	합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비 고(폐업계)
2010년(7년차)	5	1	1	2	1	-	1(동1)
2011년(6년차)	9	1	3	1	2	2	3(동1, 서1, 중1)
2012년(5년차)	10	2	3	3	1	1	3(서2, 유성1)
2013년(4년차)	13	4	4	1	3	1	4(서1, 중1, 유성2)
2014년(3년차)	5	-	1	1	2	1	1(유성1)
2015년(2년차)	5	-	-	2	2	1	-
2016년(1년차)	3	-	1	-	2	-	-
총 계	50	8	13	10	13	6	반납·취소 12개소

자료: 마을과복지연구소 내부자료



(그림 3-10) 대전시 마을기업 분포

- 마을기업의 법적지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형태가 50.0%(25개소)로 가장 많고, 협동조합이 28.0%(14개소), 영농조합법인이 22.0%(11개소)로 구성됨
- 사업유형별로는 ‘제조유통 공장점포형’이 15개소(30.0%)로 가장 많고, ‘생태농업 및 로컬푸드형’이 14개소(28.0%), ‘도시마을 공동체형’이 12개소(20.0%), ‘생활문화 여가형’이 11개소(22.0%) 등으로 구성됨

<표 3-16> 대전시 마을기업의 법적지위별 현황

구 분	합 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주식회사
개 수	50	15	-	10	25
구성비(%)	(100.0)	(28.0)	(0.0)	(22.0)	(50.0)

자료: 마을과복지연구소 내부자료

<표 3-17> 대전시 마을기업의 사업유형별 현황(2010~2016)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제조유통 공장점포형	생태농업및 로컬푸드형	생활여가 문화형	도시마을 공동체형
2010년(7년차)	5	2	2	-	1
2011년(6년차)	9	1	4	3	1
2012년(5년차)	10	1	3	1	5
2013년(4년차)	13	3	2	4	4
2014년(3년차)	5	3	1	1	-
2015년(2년차)	5	3	1	1	-
2016년(1년차)	3	2	1	-	-
총 계	50 (100.0)	15 (30.0)	14 (28.0)	10 (20.0)	11 (22.0)

자료: 마을과복지연구소 내부자료



(그림 3-11) 대전시 마을기업 유형별 현황

자료: 마을과복지연구소 내부자료

3.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²¹⁾

-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광역자치단체가 1년 단위로 마을기업 지원기관 위탁 공고 입찰을 통해 선정함²²⁾
 - 2016년도 대전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이하 마을과복지연구소)’가 선정되어 지원역할을 수행 중임

21) 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http://withcoop.org>)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22) 마을기업 지원기관에는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 법인, 연구원 등도 참여 가능하며, 마을기업협의체는 지원기관이 될 수 없음(행정자치부,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그림 3-12)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절차
 자료: 행정자치부(2016),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마을과복지연구소는 ‘조사연구, 교육·컨설팅,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생태계 조성 등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표 3-18> 마을과복지연구소의 비전과 미션

비전	
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가난하고 억압 받는 이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 우리는 지역사회의 특수성, 다양성, 독창성, 상대성을 인정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전체 주민의 공통된 문제를 우선 인식하되 소수의 개별화된 욕구를 존중한다. •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찾아 주체적 역량으로 세운다. • 우리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체에 의한 복지사회를 지향한다. • 우리는 지역사회 의식과 근린의식을 개발하며 새로운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한다.

자료: 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http://withcoop.org>)

- 마을과복지연구소에서는 직원조합원 자격으로 총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이 마을기업 관련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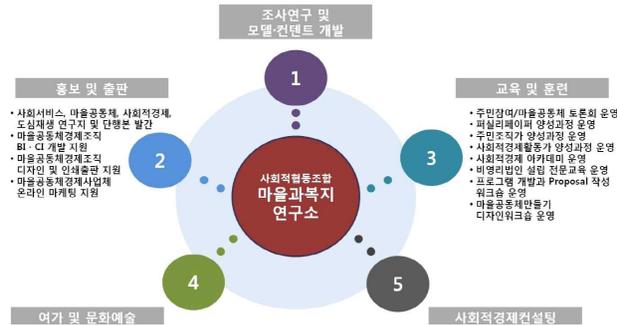
(그림 3-13) 마을과복지연구소 조직도

자료: 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http://withcoop.org>)

○ 마을과복지연구소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도시재생, 사회(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현장에서 연구하고 학습하며 실천하는 전문 활동가들의 사회적협동조합임

- 담당역할: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판로지원·홍보, 마을기업 조직 지원, 자원개발 및 연계 등

- 사회(복지)서비스 조사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실천 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조사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실천모델 개발
- 도시재생 조사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실천 모델 개발
- 여기 및 문화예술 조사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실천 모델 개발
- 로컬푸드 홍보, 캐릭터, 브랜드 개발 및 보급
- 마을공동체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지-ONE프로젝트 등 원도실현화, 모델 개발 및 보급(24)



(그림 3-14) 마을과복지연구소의 목적사업

자료: 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http://withcoop.org>)

○ 민과 관의 연결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인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매월 1회 마을기업 공동체회의, 매월 2~3회 이상 이사회, 운영회, 번개모임 등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음



(그림 3-15) 마을기업연합회 이사회 활동(2016년)
자료: 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http://withcoop.org>)

제 4 장

사례 검토

제1절 사업유형별 사례

제2절 관계자 인터뷰 조사

제3절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특성 종합

제4장 사례 검토

제1절 사업유형별 사례

1. 사례 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²³⁾

1) 어은공유마을(모임명: 청년고리)

□ 사업목적

- 새로운 공유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유를 일상화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마을과 청년을 공유경제, 공유문화의 주체로 성장시켜 마을 발전의 기회로 활용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어은공유마을
- 추진기간: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사업지역: 어은동 100~107번지 일대
- 참여자: 유성구 어은동·궁동 주민, 대덕밸리 과학커뮤니티, 충남대학교/카이스트 학생, 별집 커뮤니티, 대전 청년커뮤니티 등

□ 추진방법

- 공동체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기존 별집(코워킹스페이스), 비밀(공유주방), 유어왓츄리드(동네책방, 목독모임), 꿈꿀통(세어하우스) 등 공유공동체와 함께 많은 청년과 마을공동체, 과학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여건을 살려 공유자원을 찾고, 공유로 만나고 함께 하며, 공유문화를 알림

23)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함

- 이를 통해 청년과 마을주민들이 공유를 학습함으로써 사람사이의 연대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청년과 주민은 사회참여 주체로 거듭나도록 함

“여러명 한집 살며 침실만 따로 세어하우스 '꿈꿀통' 대전 첫선”

-대전일보, 2015.09.22.일자-

유성구청 인근 골목에 동지, 청년사업가 등 10명 입주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세어하우스(Share House)가 대전에서 첫 선을 보인다. 유성지역 청년 10여명으로 구성된 비비박스는 22일 유성구청 인근 골목에 132㎡ 규모의 청년세어하우스인 '꿈꿀통'을 오픈한다. 비비박스는 지난 4월 대전시에서 추진한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에 청년의 비정상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어하우스를 신청해 선정됐다.

'꿈꿀통'은 방3개와 공동거실과 부엌,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비박스 회원 및 입주자가 십시일반으로 모은 전세금과 지역사회, 협동조합 By&By의 지원으로 4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날 문을 열게 됐다. 비비박스 이태호 대표는 "청년이 한 달 내내 일해도 주거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없고, 무엇보다 삶의 공간인 원룸촌이 잠자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세어하우스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있는 유성구청 인근 골목에 공동주거공간을 임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어하우스는 공동주거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입주자의 삶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청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입주예정자는 청년사업가 및 지역청년 활동가 5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픈행사에는 입주자 및 일반시민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비정상주거를 말하는 청년들의 발제를 시작으로 꿈꿀통을 만드는 과정과 미래, 꿈꿀통 탐방, 옥상 후원파티 순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꿈꿀통을 통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도시문제를 공유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부추진계획

- 공유를 찾다

- 사업주제 및 기간: “어은동의 매력을 찾아라”(2016년 4월 ~ 5월)

- 참석대상: 청년 커뮤니티, 목원대학교 학생들
- 세부내용: 어은동만의 매력있는 공유자원과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 공유를 위한 자원을 찾고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성 형성 및 연대 도모

○ 공유를 만나다

- 사업주제 및 기간: 너와 내가 만나는 공유(2016년 5월 ~)
- 세부내용: 익숙하지 않은 공유를 청년과 주민이 만남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 이해하는 과정

○ 공유를 함께하다

- 사업주제 및 기간: 셰어투게더(2016년 5월 ~)
- 사업장소: 유성구 어은동 100번지부터 107-7번지 구역
- 참석대상: 어은동 주민, 청년 단체
- 세부내용: 마을과 청년의 공유자원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공유문화를 조성

○ 공유를 알리다

- 사업주제 및 기간: Shall we share?(2016년 6월 ~)
- 세부내용: 사업지역의 공유문화와 성과를 대외에 알림



동네책방(유어왓츄리드)

공유주방(비밀)

자료: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yeonsili/12342370>)

2) 석교동-마을 10년을 그리다(모임명: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 사업목적

- 쇠퇴하고 있는 석교동에서 마을 공동체 리더 및 주민의 교육을 통해 마을 재생을 시작함
-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마을의 10년을 상상함으로써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찾고 실행토록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석교동 - 마을 10년을 그리다
- 추진기간: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사업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 대상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주민

□ 주요 사업내용

구분	마을대학	마을그리기 워크숍	한걸음 천천히
기간	3월~7월	8월~10월	10월~12월
대상	석교마을주민	석교마을주민	석교마을주민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꿈꾸는 주민 모집 •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개선계획을 세우는 교육 기획 • 석교마을신문, 현수막, 마을공동체홈페이지 웹자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대학에서 제시한 마을의제를 중심으로 마을10년그리기 워크숍 • 마을예산, 환경, 주거, 경제분야별 밑그림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재생, 개선에 필요한 일을 주민 스스로 기획 • 10년의 밑그림 가운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기
참여인원	주민 30명	주민 50명	주민 50명

자료: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자료: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76713)

3) 관저공동체 하나되기(모임명: 관저공동체연합)

□ 사업목적

- 같은 가치관을 가진 관저동에 있는 5개 공동체가 모여 함께 연대하여 마을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함

□ 사업개요

- 사업명: 관저공동체 하나되기
- 추진기간: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사업지역: 관저동 일대
- 사업대상: 관저공동체 연합 소속 단체(관저마을신문, 관저품앗이공동체, 교육공동체 꿈앗이, 한살림 관저마을모임,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활동가 및 지역 주민
- 추진방법: 협업사업, 각 단체 지원사업 등

□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참여인원	주요 내용
활동가 캠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관저공동체 연합 소속 활동가 및 가족 • 목적: 각 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 방법: 5개 단체 활동가 대상의 단합놀이마당 진행 • 내용: 누가 나 좀 웃겨줘! - 마을활동가 기살리기 프로젝트
마을잔치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관저동주민 300여명 • 장소: 관저동 신선암공원 • 목적: 관저동 주민 화합과 활성화 • 내용: 1부 - 마을주민 공연, 체험 마당, 놀이 마당, 먹거리 장터, 2부 - 가족 한마당, 배드민턴 대회, 족구대회, 청소년 봉사단 활동
주민간담회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주민, 활동가 • 내용: 관저동 마을만들기 진행과 방향, 사례발표 등

자료: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해들마을 어린이도서관

교육공동체 꿈앗이

자료: 대전도시철도공사 홍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djetblog/60172289110>), 꿈앗이 협동조합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jpjump/260>)

2. 사례 2: 문화공동체사업²⁴⁾

1) 2012 문화공동체사업 「가가호호(家家戶戶)」

- 기간: 2012년 10월 ~ 2013년 2월(4개월)
- 장소: 가가호호 1호(서구 원정동 원정역 주변), 가가호호 2호(동구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주변)
- 내용: 원정역 벽화 및 마을벽화 사업, 벗짚 미술제, 새해맞이 큰잔치, 주민들과 함께하는 타일벽화 작업
- 총사업비: 100,000천원

〈표 4-1〉 2012년 문화공동체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 용	
가가호호 1호	기 간	2012. 10. 2. ~ 2013. 2. 24.
	장 소	대전 서구 원정동 원정역 일대
	참여 작가	남형돈 외 9명
	참여인원	80여명(46세대)
	관람객수	총 10,700여명(벗짚미술제 10,400명, 새해맞이큰잔치 300명)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화작업(2012. 10. 4. ~ 12. 17.) • 벗짚미술제(2012. 10. 4. ~ 2013. 2. 24.) • 새해맞이 큰잔치(2013. 1. 12.)
가가호호 2호	기 간	2012. 10. 3. ~ 2012. 12. 31.
	장 소	대전 동구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주변
	참여 작가	안나 외 5명
	참여인원	219세대(300여명)
	관람객수	약 3,000여명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일채색작업(2012. 10. 13. ~ 10. 27.) • 벽화작업(2012. 10. 29. ~ 12. 2.) • 타일부착 및 보수작업(2012. 12. 10. ~ 12. 28.) 

출처: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

24) 문화공동체사업을 주관하는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2) 2013 문화공동체사업 「동거동락(洞居同樂)」

- 기간: 2013년 3월 ~ 12월
- 장소: 서구 원정동, 중구 부사동 일대
- 내용: 공모지원, 연구조사, 홍보, 결과집 제작
- 총사업비: 100백만원

<표 4-2> 2013 문화공동체사업(동거동락(洞居同樂)) 지원 내용

구분	단체명	내용	기간
가가호호	오늘환경조형 연구소	• 마을잡지 만들기, 영화관람, 간판·벤치·그늘막 교체, 벽화그리기, 다큐멘터리 제작 등	2013. 6월 ~ 11월
	대전벚꽃미술제 운영위원회	• 2012년에 이어 벚꽃미술제 개최 • 주민들에게 벚꽃을 기부받아 곤충을 테마로 하는 5작품 설치, 썰매장 준설, 정월대보름 전날 달집 태우기 행사	2013. 7월 ~ 12월
희희낙락	H.U.E	• 과학과 결합된 다양한 예술형태에 대한 아이디어 교류 및 교안 작성, 그래픽 레코딩 - 총 6회 / 토론 3회, 견학 1회, 강연	2013. 6월 ~ 11월
	문화예술 공유모임 '오감'	• 원도심 내의 문화공동체 지속방안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축제 활성화 - 총 8회 / 사례발표 1회, 토론 4회, 견학 2회, 공연관람 1회	2013. 7월 ~ 11월
	우리대전 같은책임기 네트워크	• 개인 책임기를 넘어 문화예술로 확장하는 다양한 활동 - 총 10회(토론 5회, 강의 2회, 체험 1회, 공연 관람 1회, 작가와의 만남 1회)	2013. 7월 ~ 11월
조사연구사업	충청문화 관광산업연구원	• 기초연구 및 사례조사, 현황조사, 활성화방안 제시	2013. 10월 ~ 12월
결과집 발간	재단자체운영		2013. 6월 ~ 12월
홍보비			
일반수용비			

출처: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

3) 2014 문화공동체사업

- 기간: 2014년 6월 ~ 2015년 3월
- 장소: 벚짚예술제(서구 기성동 승상골), 대동 모놀로그(동구 대동)
- 내용: 벚짚을 활용한 작품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모놀로그 공연 등
- 총사업비: 95백만원(시비 100%)

〈표 4-3〉 2014 문화공동체사업 내용

사업명	기간 및 장소	대상	주요 활동 및 내용
2014 벚짚예술제	2014. 7. ~ 2015. 3. 서구 기성동	승상골 주민 및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작가, 주민들이 벚짚을 활용한 작품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마을 활성화 도모 - 주민간담회, 주민대상 벚짚공예워크숍, 대형 벚짚조형물 제작(7개), 야외전시진행 및 개막식, 벚짚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 달집태우기 등
대동 모놀로그	2014. 6. ~ 2015. 1. 동구 대동	대동 <착한할매일터> 소속 주민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작가들이 각색하여 모놀로그로 공연함 - 주민간담회, 작가, 주민, 학생들의 이야기모임 및 1:1 인터뷰, 중간 및 최종 발표회, 심화 인터뷰 모임, 모놀로그 전시 등

출처: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

주: 대동 모놀로그는 대동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 추진



(그림 4-1) 2014 문화공동체사업

출처: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

4) 2015 문화공동체사업

- 기간: 2015년 10월 ~ 2015년 12월
- 장소: 서구 괴곡동(고릿골 마을) 일원
- 내용: 함께 배우는 활동(문화예술 교육), 함께 즐기는 활동(참여 프로그램 및 마을잔치 개최), 함께 가꾸는 활동(설치 미술 등 창작활동)
- 참여인원: 500여 명(마을주민 및 외부 방문객, 예술가 등)
- 총사업비: 90백만원(시비)

〈표 4-4〉 2015 문화공동체사업 내용

구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수강인원
“함께 배우는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인형극 교육	2015.10.30.~ 12.11. (12회 진행)	괴곡동 경로당	마을설화 인형극 「느티나무가 된 곡동이」 교육	회당 20명
	천연염색 교육	2015.10.31.~ 12.12. (10회 진행)	괴곡동 경로당	천연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염색방법 교육	회당 20명
“함께 즐기는 활동” 마을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및 마을잔치 개최	발도장 찍기 프로그램 진행	2015.11.23. ~11.28. (6일간)	괴곡동 경로당	주민 및 방문객이 찍은 발도장으로 조형물 제작	64명 / 마을 주민 및 방문객
	마을잔치 개최 (「고릿골 괴곡 예술제」)	2015.12.19.	괴곡동 고릿골 마을 일대	길놀이, 사업 경과보고, 작가소개, 인형극 공연, 축하공연, 작품감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00여명/ 마을주민, 참여작가, 일반시민, 내빈 등
“함께 가꾸는 활동” 설치 미술 등 마을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창작활동	마을 가꾸기 활동	2015. 10월~12월	괴곡동 고릿골 마을 일대	벽화, 이야기 문패, 울타리 리폼, 테마길 조성 등	105명 / 마을주민 및 참여작가 등

출처: 대전문화재단 내부자료



(그림 4-2) 2015 문화공동체사업 결과발표회(고릿골 '괴곡 예술제')
출처: 대전문화재단 (<https://www.dcaf.or.kr>)

“담벼락은 갤러리·거리는 무대... 예술물든 고릿골”

-대전일보, 2015.12.17.일자-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머리를 맞대 예술적 상상력으로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삭막했던 담벼락이 화사해졌고, 대문엔 세상에 하나뿐인 문패가 달렸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서구 괴곡동 경로당 앞에서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했던 결과물을 공개하는 마을잔치 '고릿골 괴곡 예술제'를 개최한다. '고릿골 괴곡 예술제'는 주민과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예술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원전동·용전동을 시작으로, 부사동, 매노동·대동을 거쳐 올해 괴곡동 고릿골마을에서 진행한 문화공동체사업이다.



〈고릿골 인형극〉

이날 예술제는 고릿골 주민들이 지난 9월부터 인형극 및 천연염색 교육과 작가와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문패 등 작품활동을 진행한 내용을 시민에게 발표하는 성과 보고회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잔치에 참여한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개막식이 진행되고, 마을 어르신(이현순, 박종국 할머니 외 6명)들이 직접 출연하는 마을설화 인형극 '느티나무가 된 곡동이'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국악가수의 축하공연과 풍물패를 따라 마을 곳곳의 작품(벽화, 이야기 문패)을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장 내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웠던 천연염색(쪽물로 물들인 스카프, 감물로 물들인 모자)과 인형극을 관객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떡과 과일을 나누는 음식 부스도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즐거거리·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고릿골 '괴곡 예술제'는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www.dcaf.or.kr) 또는 재단 시민문화지원팀(☎042(480)1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3. 사례 3: 마을기업

1) (주)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밀’

□ 추진배경

- 보리와밀은 대전시 중구 원도심(중촌동)에 위치한 마을공동체로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주민들이 모여 시작한 활동임

주식회사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의 시작은

대전 중촌동이란 동네에 살면서 마을 여성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을활동이 살림 살이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사서 자원활동을 하거나 마을축제를 기획 진행하면서 사회적 자신감을 얻고 성장동력을 가진 마을여성들이 점차 자녀가 크면서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일터를 따라 마을을 떠나는 일이 안타까워 내 삶의 터전인 동네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자리까지 제공된다면?

그래서 마을순환경제의 기초까지 다질 수 있다면? 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풀뿌리여성 ‘마을숲’의 ‘공동체경제 실험’인 동네부엌 개념에서 출발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 건강한 먹거리 활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나눔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웃이 함께 사는 마을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음(대표 브랜드명: 부푸름)



(그림 4-3)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밀’

자료: <http://www.borimil.com>

□ 추진경과

- 초기에는 대전여민회 소속으로 솔밭나눔장터를 통해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함
- 2010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행정자치부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됨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로 24번길 19(중촌동)
- 2011년에 평화가익는부엌 ‘보리와밀’을 개소²⁵⁾하였으며, 이후 마을부엌을 오픈함
 - 우리밀 천연발효종빵, 우리밀쿠키, 수제과실차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장 옆에 있는 건물(창고 용도)을 2014년 임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쉴 수 있는 마을부엌을 확장함

25) 2012년 4월에 (주)평화가익는부엌 ‘보리와밀’로 전환됨

□ 주요 활동

○ 마을부엌 쿡&카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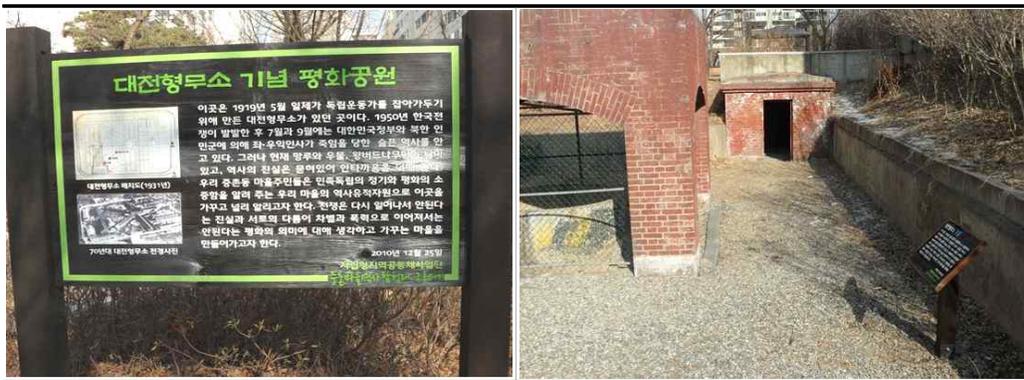
- 천연발효빵동아리, 반찬봉사모임, 안전한 먹거리강좌, 로컬푸드요리교실 진행, 부엌공간 대여 등)

○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사업

○ 청소년 프로그램 등

○ 지역 역사 활동

- 중촌동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고 보존하는 ‘중촌마을역사탐험대’ 활동을 진행함
- 특히 과거 역사로 사라져가는 옛 대전형무소 자료를 조사하고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식명칭이 없던 공원을 ‘대전형무소 기념 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세움



(그림 4-4) 대전형무소 기념 평화공원(중구 중촌동)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tjwomen/60123207989>)(2016.09.09.)

□ 주요 성과

○ 마을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사업을 스스로 찾아내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함

- 마을에 필요한 제조 공장, 마을카페(자작나무숲), 마을사랑방, 마을부엌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진행함

- 마을어린이 도서관(짜장) 개관(2007년), 마을독서네트워크,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단체 빵 기부, 수익금 마을 환원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역사자원과 연계한 지역역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자원조사 및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함

2) (주) 원도심레츠²⁶⁾

□ 추진배경

-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중구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매개로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예술자원과 지역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지역품앗이임
-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공동체라 여기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한 노동과 시간, 재화가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지역화폐인 ‘두루’를 통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함

□ 추진경과

- ‘한밭레츠²⁷⁾’ 활동이 확대되어 중구 대흥동에 마을기업 형태로 자리잡은 주민·상인들의 나눔활동 장소임
- 2012년 6월 9일 원도심(중구 대흥동)에 ‘원도심레츠’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함
 - 원도심 주민, 상인들이 주축이 되는 품앗이 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함

26) 지역품앗이 한밭레츠(<http://www.tjlets.or.kr>)와 아이쿱생협 블로그(<http://blog.naver.com/icoopkorea>) 참조

27) '레츠(LETS)'란, 지역교환 거래체계(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운영, 현금과 함께 구성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두루'라는 대안 화폐를 사용해 서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는 회원조직을 의미함(아이쿱생협 블로그)

□ 주요 활동 및 성과

- 주민들의 잉여자원을 활용한 품앗이 나눔 활성화를 주도하며, 공동체 화폐 ‘두루(대안화폐)’로 거래함
 - 두루는 원도심레츠의 모체가 되는 한발레츠에 가입한 회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로, 홈페이지 내의 계정을 통해 지급받게 됨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전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돈이 없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답답함만 앞섭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원도심레츠의 회원들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쓰인다하여 ‘두루’ 라는 지역화폐를 사용합니다. 원도심레츠는 예부터 내려오는 품앗이제도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레츠 시스템 안에서 통용되는 공동체 화폐로 서로 간의 노동과 물품을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녹색연합 행사장에서 자원봉사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지만 원도심레츠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군요. 맘에 듭니다. 제가 거기 가서 2시간을 일했습니다. 녹색연합에서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30,000두루를 ‘한발레츠’ 홈페이지의 제 계정에 넣어줍니다.

저는 통장에 입금된 3만 두루로 가맹되어 있는 ‘민들레의료생협’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사과나무’에 가서 과일도 살 수 있고, ‘북카페 이데’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

아이쿱생협 블로그(<http://blog.naver.com/icoopkorea>) 참조

- 소식지 발행 및 발송, 각종 행사비용, 사무실 운영비, 홈페이지 관리비, 실무자 인건비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함
 - 그 외에 발생하는 잉여분은 회원 동의를 얻어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함
- 현재 600여 가구가 회원으로 있으며, 아줌마들의 인문학 책읽기 모임인 ‘시루’, 클래식기타교실, 현직 연극인이 이끄는 연극품앗이교실, 웹툰작가의 막무가내드로잉교실, 쿨트교실 등 회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 등이 활성화되어 있음

〈표 4-5〉 대전시 주요 마을기업 사례

유형	공동체명 (추진주체)	활동지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공장 점포형	(주)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밀	중구 중촌동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카페, 마을부엌 운영 • 우리밀 쿠키, 빵, 건강음료 제조 판매 • 지역 로컬푸드 운동 • 마을장터, 마을사랑방 운영 • 마을신문 지원 • 지역 자원조사 및 연구모임 	행정자치부 우수 마을기업 지정 (2013년)
생활·여가· 문화형	(주)도담도담 맘스클럽	서구 갈마동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용품 대여 • 온라인 마케팅 광고 • 육아커뮤니티 활동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중구 대흥동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공연 • 문화예술교육 • 원도심 문화예술사업 	
생태농업및 로컬푸드형	영농조합법인 무수천하마을	중구 무수동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재배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혼례문화 전통체험사업 운영 	
도시마을 공동체형	(주)초원미래 나눔	유성구 노은동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카페 운영(2개소) • 규방공예사업 • 마을음악회 운영 • 마을강좌 운영 • 플리마켓(수목문) 운영 	사회적자본형 (대전형) 마을기업 지정 (2014년)
	(주)원도심 레츠	중구 대흥동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앗이만찬, 품앗이교실, 현미밥상 운영 • 짜투리시장(플리마켓) 운영 	

자료: 사회적협동조합 내부자료

주: 사업기간은 마을기업 지정시점을 의미함

제2절 인터뷰 조사

1. 지원관계자 인터뷰

1) 지원기관의 역할

공동체와의 교류 역할 담당

“주민 참여가 공동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주민과 잦은 모임을 갖고 친밀감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경우, 현장 활동가들이 멘토로서 현장지원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넷을 매개로 한 연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와의 교류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문화공동체사업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혜택과 장점을 이해시키고 참여동기를 제공토록 노력함
 - 실무담당자가 마을회관을 자주 방문하여 지역민들과의 친분을 강화함
 - 사업 초기에 소극적이던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이고 요구사항도 증가함(지속적 지원을 바라는 반응 다수)
- 마을기업의 경우, 민과 관의 연결은 물론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인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매월 1회의 마을기업공동체회의, 매월 2~3회 이상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번개모임을 통해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함

지원업무 수행의 어려움

“주민들과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주민들과의 잦은 모임에 비해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 사업 초기에는 사업에 익숙지 않은 주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문화공동체사업: 마을구성원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마을구성원-예술가 간의 요구조건 수렴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매년 말 위탁 공고 입찰을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하는 마을기업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해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 주민·공동체 대면활동이 많은 현장업무와 함께 지원기관 평가, 회계 등의 행정업무가 많아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광역단위 지원기관으로 현장지원 이외의 행정업무가 많아 총 3인의 담당자가 전체 공동체를 현장지원 하기 어려움
 - 문화공동체사업: 추진 초기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주민-재단-문화단체’ 사이의 마찰이 자주 발생함
 - 마을기업: 지원기관 종사자수가 총 3인(센터장 1인, 직원 2인)으로, 실무자 1인이 마을기업 30개소를 담당함

2) 대전시 지원시스템 특징

□ 성장단계별 구성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체계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지원 여부에 따라 공동체 활동 지속성에 차이가 큼니다.”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경우, 공동체 지원에 있어 성장단계별(모이자~해보자~가꾸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유네트워크 지원과 마을공동체지원 등이 융합되어 있음
 - 2016년에 공동체 활동 단계별(3단계) 연계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교육·자문 및 지원내용을 차등화함
 - ‘해보자’ 이후 마을성장 지원형태인 ‘가꾸자’ 로 넘어가는 단계가 수월하지 않고, ‘가꾸자’ 과정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과 함께 적절한 공간지원이 필요함

- 2017년도에는 기존 3단계를 성장·확대시켜 ‘모이자 - 해보자 - 가꾸자 - 리빙랩(가칭)’의 4단계를 완료할 예정임
- 문화공동체사업과 마을기업에서는 단기적 지원의 한계와 지속성 기반 미흡 등으로 장기적 관점의 지속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함
 - 문화공동체사업: 단기가 아닌 장기(2~3년) 지원방안 검토
 - 마을기업: 지원 종료기업의 활동 중단 방지대책 검토

□ 효율적 연계 및 자율성 보장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동체 지원기관의 협조 시스템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어 공동체와 유대관계를 맺기에 수월합니다.”

- 공동체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대전시 관련부서와 지원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대전시 공동체 사업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현재 지원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자유롭게 민간 공동체 및 조직과 소통함으로써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와 소통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동체 활동 지원 성과

□ 공동체 강화 효과

“공동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때,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됩니다.”
“민간 조직과의 연대활동이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

-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은 자원연계 역량, 관계형성 역량, 그리고 성장지원 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스스로 필요에 의한 지원방식을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함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마을활동가포럼과 구별마을넷 구성은 당사자

조직으로 스스로 지속성을 만들어가는 초기단계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문화공동체사업의 경우, 마을주민과 예술가들의 협업과정을 통해 문화적 소통과 유대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 문화소의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마을 어르신대상 인형극 프로그램, 나염손수건 만들기 등 마을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였음²⁸⁾
 - 그러나, 문화공동체사업 특성상 벗집예술제나 마을벽화 꾸미기 사업 등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경우,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마을형 사회적자본을 형성해간다는 점에서는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평가됨
 - 마을단위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추진으로 공동체 활동의 구체적 성과를 얻고 있음²⁹⁾
 - 그러나, 마을의 물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됨
- 마을기업의 경우, 민간 조직(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과의 연대, 지원활동이 공동체 강화 및 선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함
 - 반면에, 마을기업별로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편차가 크고, 일부 사업의 지속성 확보 효과는 다소 미흡함

28) 앞으로 문화공동체사업 진행시에는 마을주민들의 수익창출이나 마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9) 석교동의 지역통화를 통한 마을가게 활성화, 대화동의 빈점포와 청년공간 구성, 어은동의 청년창업 공유마을을 비롯하여 법동의 25개 단체들의 연합 축제(단순 참석이 아닌 기획과 실행 및 단체로 결합), 관저동의 관저마을연합 활동 등이 대표적임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면 공동체 역할이 중요해 질 것입니다.”
“지역자산과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마을기업이 생겨났습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 간의 만남과 소통, 생활용품의 공급, 지역 문화 및 자원활용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일부 마을기업의 경우, 종전의 영역을 확대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상담, 교육, 컨설팅, 자원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³⁰⁾
 - 도시재생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도 고려 중임
 - 마을기업 발굴 예: 원도심,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공동체 지원 확대 필요성

- 구별 지원체계: 공동체 활동에 있어 주민·공동체와 밀착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구’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해야 함(사업비 지원 등)
- 인적역량 지원: 사업의 주체인 주민·공동체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간구성 지원: ‘모임 형성 → 사업역량 강화 → 마을사업 확대’ 등 단순 모임형태에서 마을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 단계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제공이 필요함

30)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있는 ‘보리와밀’ 이 해당됨

2. 공동체 활동가 인터뷰

- 실제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면 인터뷰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란?

“마을을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야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꿈꿀 수 있습니다.”
 “미래는 나 혼자만이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붙어 나가게 공동체라 봅니다.”

- 공동체 활동가들은 공동체를 같은 뜻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함
- 같은 생각과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함
 - 소통을 위한 눈높이 맞추기가 필요하며, 공동체가 그들만의 이기주의 또는 지역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활동의 시작과 전개

“로드킬 당하는 어린 길고양이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줄 만한 나 자신의 활동이 필요했어요.”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계기로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 대전시 공동체 활동은 마을에 대한 관심, 문제 공유, 자녀 교육, 친목모임 등에서 시작됨
 - 캣맘캣대디의 깨끗한 마을만들기: 고양이를 기르는 친목모임(인터넷 카

폐)으로 시작

- 샘골봉사회: 저소득층 자녀 초등생 대상 한자영역 교육으로 시작
 - 문화유산올림(소제마을): 소제마을 이야기 책 발간을 목적으로 소제동 답사, 마을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를 모으며 시작
 - 성남사랑 빨래방: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
- 작은 친목모임 형태가 입소문과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으로 참여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활동범위가 확대됨
- 용운마을신문: 2014년 용사모(용운동을사랑하는모임) 모임 이후 신문발간을 위한 마을문제 공유, 이웃 돌아보기 활동, 미담사례 발굴, 마을기록가 양성 등을 진행함
 - 신사모: 선진사례 방문, 교육과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노래교실 및 마을노래자랑, 마을바자회, 사진전, 체육대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함
 - 한밭자이: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위해 소통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단합대회 및 좋은 마을가꾸기 참여마을 탐방, 고추장 담그기 사업 등을 진행함

□ 보람있었던 점

“마을기록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공동체 활동으로 주민, 세대간 소통의 가치와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먼저 나서 행동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 마을공동체 활동은 일상의 소소한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음
- 자칫 무관심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함

- 활동가들은 기획한 행사에 대한 참여 만족도가 높고, 주민들 반응이 좋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음

□ 애로사항과 한계

“참여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아직까지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변 인식이 모두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생계·학업으로 인한 시간 제약과 활동 인력이 부족한 점이 아쉬워요.”
 “교육이나 강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부족해요.”

-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참여자간 의견 조율, 참여인력 및 공간 부족, 운영상의 미숙, 행·재정적 지원 한계 등이 있음
 - 성남빨래방: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빨래 배달, 도배·장판 수요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충족시키지 못함
 - 용운마을신문, 갈마줍마, 한발레츠 등: 관심에 비해 행동으로 옮기는 이가 많지 않아 참여자 모집이 어려움
 - 신사모: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고, 만나는 시간이 토·일요일, 공휴일에 한정되어 있음
- 또한, 아직 비참여자들의 무관심이 팽배하고, 실제 참여자들과 주변인들 간에 거리감이 있으며,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동기 부여도 필요함을 인식함
 - 문화유산올림(소제마을): 추억이 깃든 고향이라는 인식과 노후한 동네로 개발가능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공존함
- 공동체 활동가들은 공공의 지원 확대를 통해 공동체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공공의 도움

“지원기관의 교육과 컨설팅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선진마을 견학에서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행정 및 비용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원기관을 통해서 운영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 공동체 활동가들은 공공 및 지원기관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미숙한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공동체 활동과 교육, 행정 및 회계처리 등 전 부문에 걸쳐, 문의사항이나 곤란한 점이 있을시 지원기관이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시 공동체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힘을 얻고 있음
- 지원기관에서 수행한 현장방문 프로그램으로 다른 지역 활동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공공의 예산지원이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

□ 준비자들을 위한 조언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세요. 멋진 공동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을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계획은 세세할수록 좋아요.”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공동체 활동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대전시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에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여 지원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조언함
- 뜻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주변에서 소재를 찾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활동이 우선이라고 인식함

- 마을만들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므로, 성공적인 진행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함께 하는 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독려하는 행동임
- 유관 및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지역 주민들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

□ 앞으로의 희망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대전의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공방연합이 활성화되어 월평동에 공예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들의 꿈을 키워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싶어요.”

- 공동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친목모임 성격의 활동이 장래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설립을 목표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많음(켓맘켓대디의 깨끗한 마을만들기, 한밭자이 등)
 - 통통어울림: 마을내 빈집빈터가꾸기, 활용하기 작업을 구상함
 - 신사모: 마푸꿈학교를 통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구상함
- 이를 통해 활동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다 견고한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음

제3절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특성 종합

1.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특성

1) 공동체 활동 측면

□ 주민 자발적 활동 다수 포함

-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사업지원 이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다수 포함됨
-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원하거나, 전략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 공동체 관심사항 및 활동영역 시작

-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동체활동이 시작되고, 이후 얻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자신감을 얻으면서 활동영역이 확대됨
 - 공동체 활동은 영역별로 매우 다양하며, 마을 전반적인 환경문제, 교육·육아활동 관련활동이 다수를 차지함
 - 원정동(문화공동체사업): 가가호호 사업(2012년) → 동거동락 사업(2013년)으로 확대
 - 보리와밀(마을기업):마을부엌 → 중촌마을역사탐험대
- 주민 및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진 공동체 경험, 사업 및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있음

□ 주민교감 활동 활발

- 성공사례지역 대부분 공동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공동의 이벤트·행사(마을잔치, 프로그램), 공간(도서관, 공장, 카페), 매개체(지역화폐, 지역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사업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연차 및 단계가 진행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³¹⁾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만족도(10점 만점): 7.82점(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5)
 - 지원유형별 만족도 비교: 모이자(7.81), 해보자(7.82), 가꾸자(8.33)(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5)
- 참여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공동체 활동의 인식을 바꾸고,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지속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가져올 수 있음

□ 지속사업으로서의 불안요소 내포

- 다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단계가 진행될수록 참여 공동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활동이 불투명한 공동체가 많음³²⁾
- 마을기업의 경우, 재정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운영되지 않거나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사례가 관찰됨
 - 2010년~2016년간 지정된 62개 중 12개소가 반납·취소하였으며, 지원 종료된 기업의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수가 감소추세임
-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단년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속적 활동을 유도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함

31)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자료(2015)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은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94%)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 의향에도 긍정적인 응답비율(74.6%)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2)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자료(2015)에 따르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386개 사업 중 40.1%(155개)만이 사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중심의 지원이 아닌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지원계획이 필요함

□ 참여자 확보의 어려움

- 대전시 공동체 활동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소수 주민 중심의 역량과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경우, '구성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속성이 불투명한 사례가 관찰되고 있어 효과적인 참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상당수가 '지인 소개'로 활동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³³⁾

2) 지원 측면

□ 사업유형별로 전담 지원조직 구성

- 본 연구에서 검토된 대전시 공동체 지원사업은 사업유형별로 전담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문화공동체 사업(대전문화재단), 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³⁴⁾)

□ 지원기관 중심의 교육·지원활동 추진

- 공동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향후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 현재 공동체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33)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자료(2015)에 따르면 371명의 사업 참여자 중 34.0%(126명)가 '지인의 소개'로, 30.5%(113명)이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의 소개'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34) 마을기업을 지원기관은 매년 1년 단위로 위탁공고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는 2016년에 선정된 기관임

통해 단계별 전문교육 등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사회적자본지원센터): 협의체 구성 및 활동가 포럼 운영, 신규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육, 단계별 전문교육,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및 기획사업 등
- 문화공동체사업(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시민문화지원, 정책연구·경영, 교육지원 등
- 마을기업(마을과복지연구소):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등

□ 중간 지원기관·단체 역할 중요

- 활성화된 공동체사업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 간의 만남과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민-관의 중간역할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함
- 주민활동을 위한 거점공간과 사업유형별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상설 소통구조가 유기적인 관계망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동체 활동 및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불필요한 제약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
- 입찰공고를 통해 1년 단위로 지원기관을 선정하는 마을기업의 경우, 지원기관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 노하우의 지속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총괄적 연계 미흡

- 대전시 공동체 지원사업은 각기 다른 지원기관 및 개별부서가 관할하고 있어 전체적인 공동체 통합 관리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 대전시에서는 현재 공동체 관련 현황자료 조사가 미흡하며, 관련부서별

공동체 관련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음

- 공동체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도시재생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공동체 관련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하여 전방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지원기관, 시민단체, 연구·전문가, 대학 등 활용

□ 제도(조례) 구축

-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 공동체 관련사항이 일부 조례에 분산되어 있고, 마을공동체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임
- 주민참여 및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재생사업 확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단계별 맞춤형 지원

- 공동체 구성부터 네트워크 구축까지 마을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해당 공동체 사업모델에 적합한 방식의 ‘맞춤형 지원’을 시도하고 있음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모이자 - 해보자 - 가꾸자’ 등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 여건 또는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유형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고 있음
 - 문화공동체사업: 자발적 공동체 활동에 기초한 문화적 공동체성을 지속가능한 자생적 요인으로 활용
 - 마을기업: 공장점포형, 생활·여가·문화형, 도시마을공동체형, 생태농업 및 로컬푸드형으로 구분

2. 사업별 도시재생요소 검토

- 대전시 공동체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생요소 관련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생요소와 관련하여 ‘지역성 회복’, ‘역량 강화’, ‘지역자원 조사’, ‘커뮤니티 사업’, ‘거점공간 활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
- 공동체 구성을 통한 조직 체계 구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영역에는 다수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동체 활동기반인 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 재생 항목은 상대적으로 구성내용이 다양하지 않음

〈표 4-6〉 사업유형별 재생요소

사업유형	재생요소	관련내용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주민, 공동체 교육(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공동체 시작학교, 마을활동가 전문교육 등)
	지역자원 조사	지역자원 발굴 및 연구조사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활동 플랫폼 역할: 마을신문, 도서관 운영 등 총괄 공동체 조직 구성(관저공동체 연합)
	거점공간 활용	공유마을 조성(어은공유마을): 공유공간, 책방, 세어하우스, 공유주방 등
문화공동체사업	지역성 회복	지역 공동체성 회복, 자생적 문화공동체 발굴, 문화예술 프로젝트(벚집미술제, 새해맞이 큰잔치 등)
	역량 강화	문화예술 소모임 활동: 대화, 토론, 책임기
	지역자원 조사	문화자원 연구조사,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대동 모놀로그)
	마을환경 재생	벽화작업, 울타리 리폼, 테마길 조성, 이야기 문패 등의 마을 가꾸기 활동 문화재생 아이디어 수렴
마을기업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마을만들기교육 등), 멘토링
	지역자원 조사	역사문화자원(보리와밀)
	커뮤니티 활동	문화예술, 상업활동(수익사업, 대안화폐), 체험프로그램 운영, 플리마켓 운영, 브랜드 개발(부푸름) 등
	거점공간 활용	카페 운영, 동네부엌 운영, 수공예품 제조

제 5 장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제1절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영역 설정

제2절 지원영역별 활성화 방안

제3절 정책적 지원방안

제5장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제1절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지원영역 설정

1. 관련연구에서의 영역 검토

- 도시재생과 관련된 영역은 매우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자 또는 사업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됨
- 정석(1999)은 마을만들기의 활동영역을 ‘사람 만들기’, ‘공동체 이루기’, ‘삶터 가꾸기’ 등의 3가지로 구분하였음³⁵⁾
 - 사람 만들기: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을사람(주민, 시민)을 기르는 일
 - 공동체 이루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 경로와 활동체계를 만들며, 주민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일
 - 삶터 가꾸기: 주민 생활환경인 마을삶터를 주민들(시민, 이용자)이 스스로 가꾸는 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 장소를 만들어 가는 일
- 김권수(2014)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환경재생’, ‘경제재생’, ‘생활재생’ 등의 영역으로 구분함
 - 환경재생: 물리적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시가지 정비
 - 경제재생: 산업, 경제 등의 상권 회복 및 기능 활성화
 - 생활재생: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성 확보
- 국토교통부(2014)에서는 도시재생유형별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을 정립함에 있어 지역유형을 주거지역, 구도심상가지역, 도심산업밀집지역 등으로

35)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5.

구분하여 제시함

〈표 5-1〉 국토교통부(2014)의 지역유형별 사업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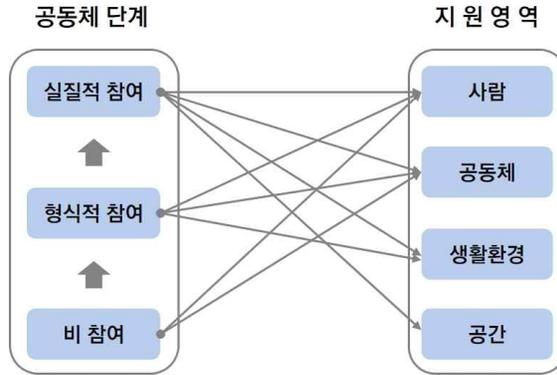
구분	핵심콘텐츠	주요 활용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 노후주택 수리 • 공동체 거점공간 제공
	교육-체험프로그램	• 주민-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사회서비스 (육아, 노인돌봄)	• 긴급상황 서비스 제공 • 아동 보육, 청소년 교육 등
	마을카페 및 식당	• 카페 운영, 먹거리 판매 • 공동 재배활동
	주택건설 및 임대	• 노후주택 수리 후 저소득층 임대
구도심 상가지역	도시재생회사	• 지역재생을 위한 공동 출자 활동 • 상가 재생사업 추진
	문화예술기반	• 예술가 연계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 예술작품 제공기회 확대
	유희공간 활용	• 빈집 등 유희공간 활용 • 매입 이후 새로운 기능 활용
	공방 등 교육프로그램	• 예술가 참여를 통한 공방 운영 •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먹거리 활용	• 먹거리를 활용한 식당, 카페 등 운영
도심산업 밀집지역	공동 브랜드화	• 지역특성을 활용한 공동 브랜드 출시 • 고용 창출 및 수익성 제고

출처: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2015년에 추진된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지원사업 종류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람키우기 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함³⁶⁾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사례조사, 위원회 운영(실무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업성과 최종 보고대회
 - 사람키우기 사업: 마을활동가 포럼운영, 신규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마을활동가 전문교육
 - 홍보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홍보물 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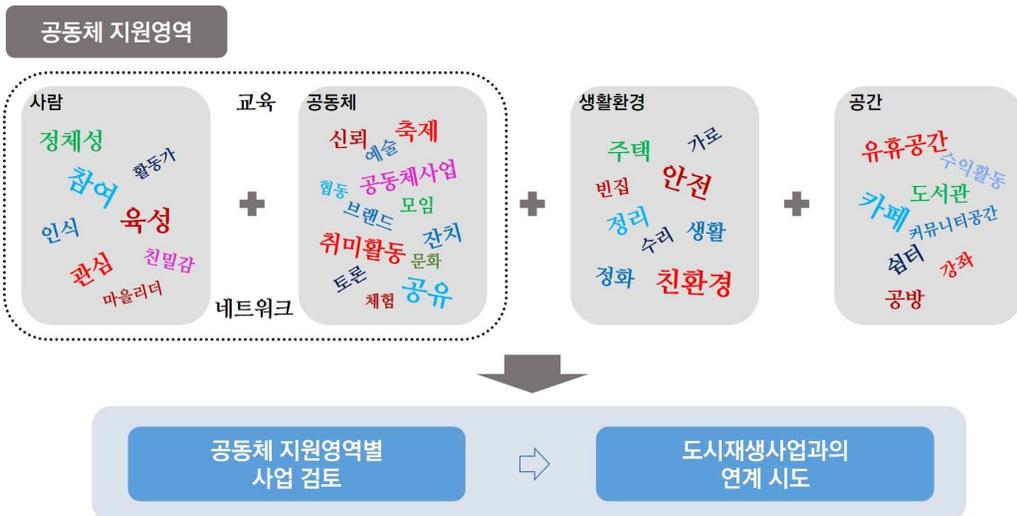
36)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5), 2015년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성장사례조사 사업결과 보고서 참조

2. 지원영역 설정 결과



(그림 5-1) 공동체 단계와 지원영역 관계

- 본 연구에서는 정석(1999)의 연구를 참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영역을 설정함
 - 구성원 교육 및 육성, 공동체 조직 및 지원, 생활환경 정비, 공간 조성
- 대전시 사례를 토대로 지원영역별 내용을 살펴보고, 영역별 활성화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그림 5-2)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영역별 사업연계 과정

제2절 지원영역별 활성화방안

1. 구성원 교육 및 육성

□ 마을학교 운영

- ‘주민 관심 증대 → 리더 발굴 및 참여 확대 →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함은 주민·공동체 주도의 재생을 이끌어내는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주민 흥미를 유도하고 참여단계 이전부터 사업효과를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활용 필요(선진지역 답사 및 우수사례 활동가 초청 특강 등)
- 적절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지원함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명확한 교육대상 설정 및 구체적 실행프로그램 접목 노력 필요(예: 활동가 발굴, 주민 이해 및 참여 유도, 단계별 전문 교육 등)

□ 지역 전문인력 적극 활용

- 전문가 및 대학 등 대전시가 보유한 지역 전문가 인력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함
 - ‘마을 문제 - 대학’과의 연계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개론’의 지원 확대 검토(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마을주민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설계 등)
 - 체계화된 지역 교육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네트워크’ 참조

〈 대전시 ‘마을학개론’ 실행계획 〉

- 사업명: 2016년 마을학개론
- 사업기간: 2016년 8월 ~ 12월
- 사업목적: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복지생태계, 마을생태계 영역은 미래성장 동력. 대학의 청년과 마을의 연계를 통해 점점확대 및 동력강화. 마을의 문제를 대학의 시각을 통해 해결하고, 대학과 학생에게 마을공동체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대상: 목원대, 대전대
- 사업내용: (시범)담당교수와 의 논의를 통한 3~5개 프로젝트 실시, 학과와의 협약을 통한 사업 진행, 마을학개론을 마을에서 리빙랩방식으로 교육 설계

목원대	대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발견 탐방활동 진행 • 지역사회 문제해결 워크숍 진행 • 아이디어 경진대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현장탐방: 도시재생과 사회혁신에 대한 현장 경험 • 현장조사: 팀별 커뮤니티 맵핑 현장실습 수행

자료: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내부자료 참조

□ 마을활동가 발굴

- 지역 내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동가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확대함
 - 대전의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조직한 ‘대전마을활동가포럼’ 확대 및 정기적 포럼 운영 지원
 - 세미나에 결정권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의 ‘마을활동가 연수프로그램(2016년)’ 〉

- 사업명: 2016년 마을활동가 국외사례지 연수 및 마을 국제컨퍼런스 참여자모집
- 사업목적: 국외 선진마을 사례지 탐방을 통해 현재 마을에서 고민하는 의제와 문제를 해결할 실천방법 모색과 시사점 도출, 마을활동가가 마을 컨퍼런스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국내외 활동가의 교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3년 이상 마을활동 경험자들의 모임 및 단체(3인 이상)(총 3~4개팀 선정)
- 지원유형: 국외사례지연수-마을국제컨퍼런스 연계형, 마을활동가국외사례지연수, 마을국제컨퍼런스 등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공고문) 참조

□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 향후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추진에 대비하여 관련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토록 지원함
 - 노후지역 주민 지원 및 연계, 주거복지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전문가 등 관련 일자리 창출 유도
- 청년 등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및 재생 분야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민간영역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문제 해소방안으로 활용함
 - 일자리 창출(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지역밀착형(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관련사례 참조 가능

〈 서울시의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2016년)' 〉

- 사업명: 2016년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 접수기간: 2016년 9월 12일 ~ 9월 28일
- 모집인원: 309명(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주민·공동체관련 주요 분야(예)

청년공간 운영관리 매니저	-청년공간 시설(무중력지대, 청년청 등)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지원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공간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서울 청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서울지역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관리 직무 개발 및 컨설팅 -지역 중심의 소모임 활성화 등 서울형 자원봉사 모형 및 콘텐츠 개발 -재난재해시 복구활동, 자원봉사관리 역할 수행 등 서울시 상비인력으로 활동
임대주택상담전문가 양성	-무주택서울시민에게 임대공급시 공급기준, 자격 등에 관한 대면 및 전화상담(년 4~5회 모집 공고, 1회 공고시 3~4개월 소요)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권리분석 심사보조, 계약체결 및 서류관리, 입주자격 등 전화상담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운영	-내방고객 및 현장방문 고객 상담, 주거상담 사례관리,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실태조사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실태조사, 내방고객 및 현장방문 고객 상담, 주거상담 사례관리 등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공고문) 참조

〈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란?
 - 동주민센터를 기존의 민원처리 중심의 공간이 아닌,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가 실현되는 마을공동체 조성의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2015년 7월 ~)
- 활동내용
 -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건강 분야의 전문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가정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활동 참여는 지역 주민 누구나 가능)
 -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복지·건강 안전망 강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 자치의 기반 마련
- 시행지역: 2015년 13개구 80개에서 시작. 2016년 7월 18개구 283개 동주민센터로 확대
- 참여전문가: 방문간호사,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 플래너, 마을사업 전문가



자료: 네이버 블로그 (서울의 청년일자리 사업)

2. 공동체 조직 및 지원

□ 공동체 활동 다양화

- 대부분의 공동체 활동은 공동육아(돌봄사업) 등 주민들의 특정 문제 또는 관심사항에 대한 갈등해소 차원에서 시작됨
- 공동체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자체적인 노하우를 체득하고 자신감을 토대로 또 다른 영역으로 공동체활동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음
- 결국, 공동체활동이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활력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피드백 과정을 통한 새로운 문제 발굴 및 해결 기회 제공
 - 마을신문·마을잡지 만들기: 지역주민·공동체 정보교류의 장이자 매개체 역할

□ 주민 모임 활성화

- 주민대상 간담회, 워크숍을 통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의제 발굴에 주력함
- 주민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함
 -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 공모사업 방식을 활용한 우수사례 지원(예: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우수사업 발굴 등)

□ 마을조사 및 지역자원 발굴

-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마을자원 조사 및 자원 발굴작업은 지역의 자산과 가치를 주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 등에서 대부분 사업초기단계에 주민참여 및 인식 제고 과정에 활용 중임
 - 보리와밀 등 대천시 일부 공동체에서는 자체적인 지역 자원조사 및 연구모임활동을 진행함
- 주민·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에 숨겨진 역사와 가치를 찾는 과정은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할 만한 재생요소임

□ 마을잔치 및 축제

- 공동체 활동사업에서 활용된 벗짚미술제, 새해맞이 큰잔치 등의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마을잔치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활력을 제공함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마을주민과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행사 개최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역량이 축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마을행사(축제 및 잔치) 개최, 예술가 연계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예술가 참여공간 제공 등

3. 생활환경 정비

□ 주거환경 가꾸기

- 실제 주거환경 개선은 참여자의 관심을 높이고 물리적 측면에서 실제 활동의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유도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재생관련 정비사업 등에서 거주주택 등의 환경개선은 실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공동체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재생요소가 확대 도입되어야 함
 - 주택개량 지원, 가로환경 정비,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등

□ 가로환경 개선

- 열악한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마을길 만들기를 추진함
 - 가로수 식재, 도로포장 교체, 보행자 휴게공간 제공, 안전시설 확대 간판·벤치·그늘막 교체, 통일성있는 가로경관 형성 등

4. 공간 조성

□ 예술문화공간 조성

- 문화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작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예술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스트리트 마켓 조성 검토: 중고물품, 육아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상품을 직접 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교류공간 조성(플리마켓 등)
 - 청주시 소나무길 ‘문화의 거리’, 서울 동북4구 플리마켓 ‘일단해보장³⁷⁾’
 - 지원기관을 통한 종합평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진행(다음년도 사업에 반영)

□ 커뮤니티센터 조성

-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공동공간은 공동체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건설비 등으로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
 - 타 지자체의 경우, ‘신규 → 리모델링’, ‘대규모 → 소규모’ 위주의 공급으로 전환 추세
- 공동체 활동이 성과로 나타나고 공간수요가 가시화된 이후에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임
 - 초기에는 타 기능(용도)과의 복합활용 유도

□ 공유공간 공급

-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동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 및 공유공간으로 사용함(마을텃밭, 쌈지공원 등)
- 소통과 나눔의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공간을 확대 보급함

37) 서울 동북4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가 주도하여 사회적 경제수공업 제조소상공인 100여 팀의 수공예 제품을 생산 판매하며, 다양한 문화공연·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음

-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대학가 등 학생·청년 밀집 거주지역에 공유주택, 공유부엌 등 공급 검토
- 원도심 주변 빈 점포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거점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예: 원도심 청년 거점공간 조성계획,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지원)

〈 청년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

□ 취지

- 청년 커뮤니티 창업 준비자와의 협력을 통해 빈 점포 및 유휴공간에 청년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공장 주변지역 활성화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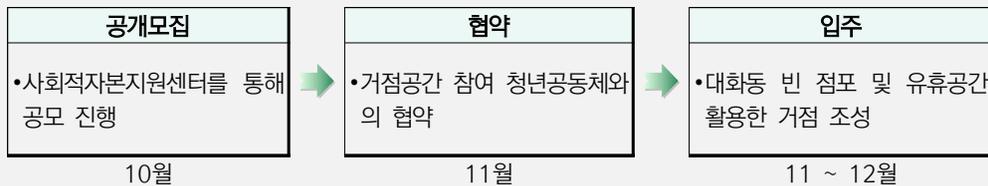
- 청년공동체 활동을 진행 중인 청년들 중 거점 공간이 없어 활동이 어려운 공동체와 원도심 활성화를 고민하는 마을공동체의 연계
- 빈 점포 및 유휴공간의 건물주와 소통을 통해 장기간 저리임대로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활성화를 목표로 함



〈청년 거점공간 대상지역〉

□ 실행 개요

- 사업명: 원도심 청년 거점공간 조성
- 사업기간: 2016년 10월 ~ 12월
- 추진기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추진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
- 추진경과: 주민과 청년 대상으로 간담회 진행
- 진행절차



- 행정지원 요구사항: 입주공간 공간 조성비용 지원, 거점공간 참여 공동체에 대한 협약, 청년 창업 지원 등

자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내부자료

□ 공유공간 네트워크 확대³⁸⁾

- 적절한 공유공간 활용은 공간 조성 부담을 낮추고, 공동체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유휴공간을 개방할 의사가 있는 시설 전수조사 실시
 - 공간을 개방중인 시설에 대하여 MOU 체결 및 공유대전 플랫폼 탑재
 - 연 1회 공유공간 제공자와 수혜대상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유공간 컨퍼런스 개최
- 공유공간과 마을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공유네트워크 연결망을 강화할 수 있음
- 대전시에서는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네트워크 플랫폼 ‘공유대전’을 통해 대전시청, 구청, 주민센터, 출연기관 등 51개 공공기관, 114개 공간을 시민이 모임장소로 이용하도록 개방한 바 있음(공공시설 중심으로 진행)
- 2016년부터는 공간공유 개방장소를 종전 공공시설 중심에서 민간단체, 금융기관, 교회 등 민간시설까지 공유공간을 확대 지정할 예정임
 - 종전: 공공공간 → 민간활용
 - 확대: 공공 + 민간공간 → 민간활용

④ 우리지역공유자원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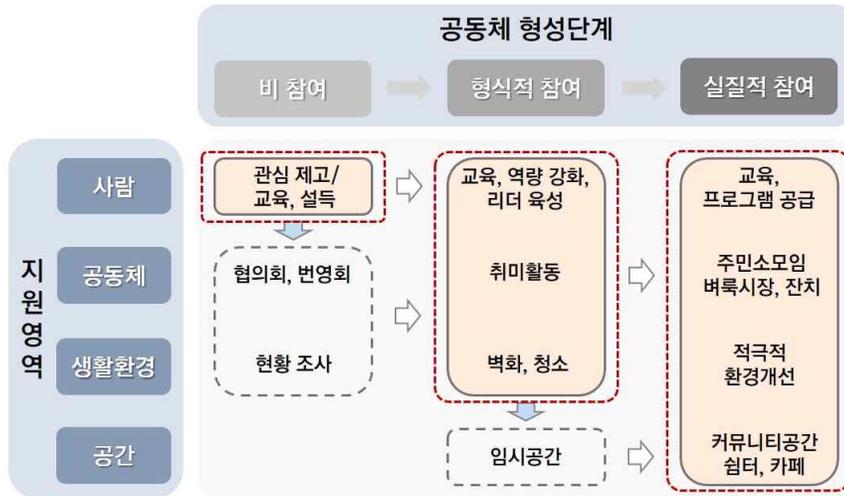
(그림 5-3) 공간공유 시스템

자료: 공유대전 홈페이지 (<http://daejeonshare.kr>)

38) 공유대전에 따르면 2015년 9월 15일 기준으로 대전시 108개의 공간(공공시설)이 공유공간으로 등록되어 있다.(<http://daejeonshare.kr>)

5. 지원영역별 활성화 종합

- 앞서 도출된 영역별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5-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그림 5-4) 마을공동체 단계에 따른 지원영역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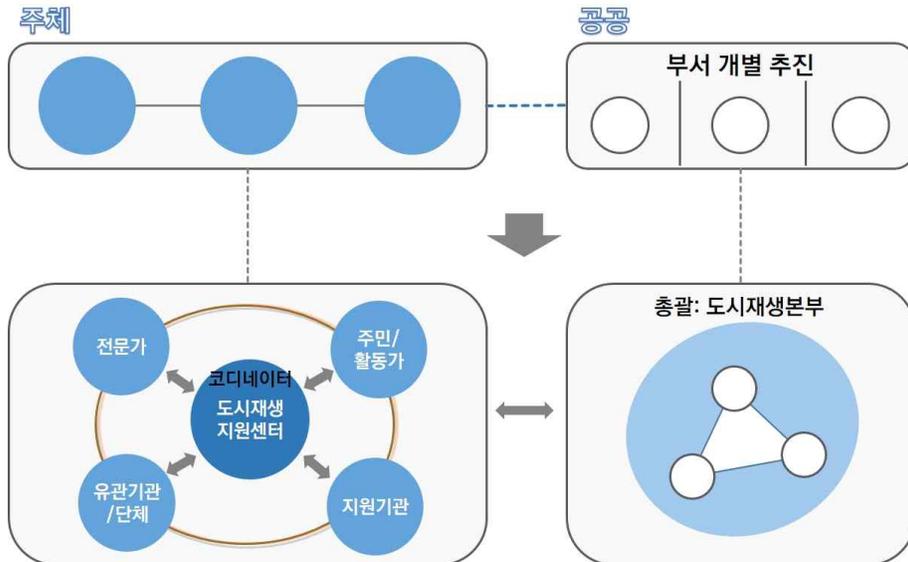
- 각 영역별 지원에 있어 마을공동체 형성단계(비 참여 → 형식적 참여 → 실질적 참여)에 따라 적정 지원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비 참여’ 단계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심을 높이고 교육하는 일에 주력하고, 공동체,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준비를 진행함
- 마을공동체의 ‘형식적’ 참여단계에서는 사람,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수행함
- 공간 조성은 타 지원영역 보다 늦게 진행되며, 공동체의 ‘형식적’ 참여에서는 임시공간을 제공하고, ‘실질적’ 참여에서는 커뮤니티공간, 쉼터, 카페 등을 조성함
 - 주민 요구와 필요성, 사업비 부담과 향후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함

제3절 정책적 지원방안

1. 지원체계 개편

□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 개편

-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공동체 활동 전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조직 구성이나 지원시스템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형태임
 - 사업별로 개별 담당부서가 전담하는 형태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공동체 현황관리의 한계와 비효율적인 지원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지원역할을 총괄·관리하는 조직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형태로 조직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5-5)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체계 개편(예)

□ 대전시 도시재생 연계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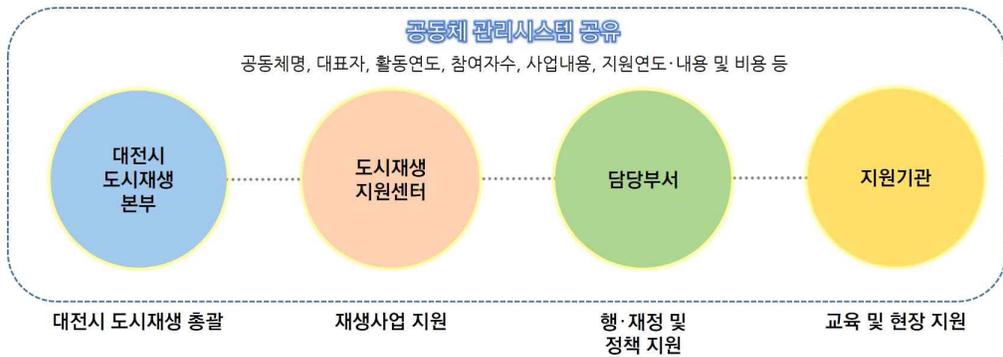
- 도시재생과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색깔과 역사가 담긴 ‘스토리텔링형 도시재생’이 도입되어야 함
 - 대전시 도시재생 이미지 및 스토리텔링 공동작업
 - 공동체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단위 축제 확대
-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는 마을기업이 도시재생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 도시재생 → 마을공동체 / 사회적경제’ 등 선순환 방식의 공동체 경제생태계 및 육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2. 현황 관리체계 마련

□ 대전시 통합 공동체 현황자료 구축

- 현재 대전시 공동체 관련자료는 지원기관 또는 대전시 담당부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공동체 관련 현황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으며, 통일된 작성기준이 없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
- 이는 대전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공동체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된 통계 및 현황자료 구축이 시급함
 - 지원대상인 공동체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총괄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지원조직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하고, 총괄조직과 지원조직이 상시 공유하는 체제로 마련할 수 있음(지속적 업데이트 유도)
 - 공동체 단위의 생성과 소멸, 지원 여부 등의 이력을 상세하게 담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표준화된 공동체 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통일된 양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입력하면 현황자료 파악이 용이하므로,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지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전시 담당부서 및 지원기관이 협력하여 공동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수록 내용: 공동체명, 대표자, 활동연도, 참여자수, 사업내용, 지원연도·내용 및 사업비 등



(그림 5-6) 관련기관의 공동체 정보 공유(예)

3. 공동체 지원 강화

□ 대전형 재생사업 노하우 구축

○ 대전시 우수사례 공유

- 대전시 및 타 지자체의 우수 마을공동체 활동사례를 선별하여 공유하고, 유형별로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대전시 공동체 지원자와 활동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례지 체험은 공동체 활동가들에게 정보 제공 및 새로운 동기부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장기적 지원플랜 마련

-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단기간(1년) 지원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원(2~3년 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보다 많은 공동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공동체사업 예: 종전 1년 1공동체 지원 → 2~3공동체 동시 지원 형태로 확대 전환
- ‘주민·공동체 - 실무담당자(지원자)’ 간의 대면접촉을 통해 교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현장 지원자(실무자) 배치방안, 행정기관-지원기관-마을리더들의 합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도입 검토

□ 실무담당자 지원역량 강화

- 재생사업은 주민 역량뿐만 아니라 실무담당자의 역량과 참여정도에 따라 결과물에 큰 차이가 발생함
 - 실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생 및 공동체 관련업무의 노하우를 구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재생사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강화, 인원 확충, 업무 습득기간 반영(근무기간 보완) 등이 필요함

4. 추진방식 다변화

□ 공동체 지원의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 도시재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간성 회복에 근거한 공동체 활성화

화가 반드시 필요함

- 도로, 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효과보다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재생사업에서도 기존 사업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인식으로 인하여 실무담당자나 종사자들은 재생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아직까지 주민 친목모임 성격이 많은 공동체 사업비용 지출에 부정적인 인식도 높은 편이며, 사업에 가치를 두는 공공과 친목, 모임에 가치를 두는 민간 사이에도 시각차가 큼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목 등 소모적 인식의 비용지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야 함
- 공동체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일부 관련연구에서는 지속성(기간), 참여자 수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객관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되,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방식은 철저하게 제외토록 함

□ 지원방식 다양화

- 지정공모 방식과 자율공모 방식을 적절하게 배분함이 지속적인 사업을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정공모: 공공의 전략적 공동체 구성 유도
 - 자율공모: 자발적 주민 공동체 구성 및 참여 유도
- 자율공모 방식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지만,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지정공모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화단 조성, 청소, 쓰레기, 기초질서 등 즉각적 효과가 높을 수 있는 아
이템을 대상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사업 아이템을 민간단체에서 제시해 준다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공동 추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표 5-2〉 추진방식별 특징 비교

지원방식	장점	활용방안
지정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 전략적 활용 가능 •시급지역에 선별적 적용으로 즉각적 개선 효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지원형태로 추진 •공공-민간 협력형태로 유도
자율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동에 기반한 이상적 추진방식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 지원형태로 추진

□ 공동체 프로그램 및 지원대상 확대

- 공동체 활동가들에게 부족한 사업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활동 진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 부족하거나, 도입이 시
급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마을주민·공동체 대상의 문화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탐방 워크샵
추진
 - 지역화폐 시범 프로그램, 청년인턴제 도입, 매칭펀드 도입 등
- 민·관, 민·민 우수 협력지역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공동체 활성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대전시 도시재생 스토리 발굴 및 민·관 공동작업 확대 추진 고려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최근 노후 도시의 공동화,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도시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재생방식으로 활력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복원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대전시에서도 그 동안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
 - 다양한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공동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음
-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3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공동체 활동 측면에서는 공공의 지원 이전부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고 주민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음
 - 대전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있어 사업유형별로 전담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교육·지원활동을 추진하면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중간 지원기관은 민·관의 중간역할로서, 유기적인 소통과 관계망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대전시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역할이 미흡하고,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공동체 관련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연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 마을 공동체 지원영역별 활성화방안은 크게 '구성원 교육 및 육성', 공동체 조직 및 지원', '생활환경 정비', '공간 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구성원 교육 및 육성 영역에서는 마을학교 운영, 지역 전문인력 활용, 마을활동가 발굴,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이를 통해 주민 관심을 증대하고, 리더 발굴 및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재생의 기본요소를 다져나갈 수 있음
- 공동체 조직 및 지원 영역에서는 공동체 활동 다양화, 주민 모임 활성화, 마을조사 및 지역자원 발굴, 마을잔치 및 축제 지원 등을 제시하였음
 - 주민 관심과 자부심을 토대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임
- 생활환경 정비 영역에서는 주거환경 가꾸기, 가로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 실제 주거공간을 가꾸어 나간다는 재생의 취지에 부합하고, 환경 개선의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유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공간 조성 영역에서는 예술문화공간 조성, 공유공간 공급, 커뮤니티센터, 공유공간 네트워크 확대 등을 제시함
 - 공간 조성은 적극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제로 주민·공동체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공급이 적절하며, 이를 토대로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음

제2절 정책 제언

- 대전시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표준화된 통계 및 현황자료 구축과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부서·지원기관 간의 협력적인 관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합리적인 공동체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기관의 역할을 총괄하는 조직 구성이 검토될 수 있음
- 대전시만의 재생사업 노하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우수사례 공유, 실무담당자 지원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강화, 장기 지원플랜 마련 등의 제반 작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 또한,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추진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합리적인 관리체계와 지원시스템을 토대로 대전시 도시재생을 이끌어 갈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조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동에 기반한 재생사업이 노후한 기성시가지 개선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안정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 문헌자료

- 국토교통부, 2016,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2014,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김권수, 2014,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제4권 1호(2014), pp.66~92.
- 김미연, 여옥현, 최진원, 2010,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설계지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4호(통권258호), pp.231~241.
- 김영, 이준호, 김홍수, 2011,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범사업의 추진과정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 2011 주거환경학회 춘계 학술대회 pp. 18~29.
- 김영정, 2006,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발견 -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2-21.
- 김은선,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 문화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환, 201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례연구, Schoo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 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 김학실, 2013, 도시재생과정에서 마을기업의 역할,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pp. 41~60.
- 노정민, 구자훈, 2012, 주거지 재생사업에서의 주민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분석 -도시재생사업단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4권 제4호, pp. 115~130.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5, 2015년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성장 사례조사 사업결과 보고서.
- 박병춘, 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제20권 2호, pp.1-26.
- 배웅규, 이하영, 2014,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시범 사업의 시행효과 분석 연구-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前 휴먼타운) 시범구역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5권 제4호, pp. 223~238.
- 서울연구원,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연구원.
- 선정원, 2004,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004년 하반기, pp. 311~342.
- 신화경, 이준민, 조인숙, 20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요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Vol. 21, No. 4, 2010, 7pages.

- 양재섭, 김영환, 김정원, 2007,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5호 2007. 10, pp.129~143.
- 양재섭, 남선희, 2015,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59권 제06호 2015년 06월호 pp. 57~62.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6(1): 53-87.
- 오완석, 2013, 마을공동체회복사업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제3권 2호(2013년), pp.104~125.
- 유재운, 박정은, 정소양, 김태영, 2013,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2013.3 6pages.
- 유희중, 정철모, 2011, 지주공동체가 주체가 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도시재생 사례,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9권 2호 pp.155~163.
- 이기태, 하현상, 201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5(1): 455-490.
- 이삼수, 2015,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조직 발전방향,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59권 제06호 2015년 06월호 pp. 63~67.
- 이석우, 2015,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한 주민참여 재생사업,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 이태희, 2015, 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의 의미와 정책 내 반영실태에 관한 고찰-영국의 New Deal for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제86권 pp.139~159.
- 조성제, 20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방안-체계 정당성 및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43집 2014년 12월 267~297면
- 정석, 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재희,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지역과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정책 Brief 2013.7. 2013-17 8pages.
- 최문형, 정문기,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정보 49(2): 273-306.
- 한승욱, 2011, 마을기업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포럼 2011, PP 32~33.
- 행정자치부, 2016,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홍경구, 2015,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59권 제06호 2015년 06월호 pp. 51~56.
- 홍언, 이상호, 2012, 홍콩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개선안 연구, 대한 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8권 제8호(통권286호) 2012년 8월 pp. 55~62.
- Nisbet. R. A., 1985, 「공동체이론의 역사, 공동체이론」, 문학과 지성사.
- Sherry R. Arnstein,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AIP, Vol. 35, No. 4, pp. 216-224.

□ 인터넷 및 기타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http://stat.molit.go.kr>)
- 다음·네이버 블로그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ocialcapital.kr>)
-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djrc.kr>)
- 대전도시철도공사 홍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djetblog/60172289110>)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dcaf.or.kr>)
- 대전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https://www.facebook.com/withcoop1>)
- 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 (<http://withcoop.org>)
- 아이쿱생협 블로그. (<http://blog.naver.com/icoopkorea>)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인천마을기업 홈페이지. (<http://se.incheon.go.kr>)
-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홈페이지. (<http://www.tjlets.or.kr>)
-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 홈페이지. (<http://www.borimil.com>)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
- <http://www.georgejulian.co.uk>

부록



부 록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5-02-17 조례 제 4421호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00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30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467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4.>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유네트워크”란 공유를 위한 협력적 공동체인 사회관계망으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관계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공유사업의 발굴 및 실천지원
2.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육성·지원

3. 공유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과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공유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공유활성화 추진체계와 기반 구축
2. 대전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공유 시책 및 전략
3. 공유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8.14.]

제5조의3(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4.]

제6조(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을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공유기업 또는 공유네트워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②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4.>

[제목개정 2015.8.14.]

제7조(사업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외에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공유활성화지원센터) ① 시장은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유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유활성화 정책의 추진
2. 공유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홍보
3. 공유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4.]

제8조(공유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유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4.>

1. 공유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과학경제국장, 도시재생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8.14.,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활동가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

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부칙 <조례 제4421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530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 을 “과학경제국장” 으로 한다.

②~(28) 생략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정) 2013-02-28 조례 제 4171호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 4198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 4374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5-04-17 조례 제 4445호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00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 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 “시민공동체”란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공동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정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방향 및 전략
2. 추진체계와 기반구축
3.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자본확충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시책 및 사업
4.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5.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과 도시재생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10., 2014.12.31.>

1. 대전광역시회의의원
2.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활동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부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시재생본부장, 위촉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10., 2014.12.31.>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 ⑧ 위원회에 참석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자본 연구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지역의 사회적자본 진단 및 사례 조사
 - 2.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분석
 - 3.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연구
 -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자본 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2. 민·관 협력 증진
- 3.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5.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및 공익 활동가의 발굴·육성
 6. 시민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8.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지원)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주민조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171호,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8호,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⑮~(64) 생략

부칙 <조례 제4445호, 2015.4.17.>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4) 생략

(4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113) 생략

제5조 생략

정책연구보고서 2016-15

대전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연구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9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협성문화사 TEL 042-627-8893 FAX 042-627-899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